6.15주간

주체91(2002)년

6.15Weekly

제45호 (4월 26일~5월2일)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 조국광복회 창립선언



민족통일전선의 어제와 오늘

최성홍을 파면하라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45호 (4.2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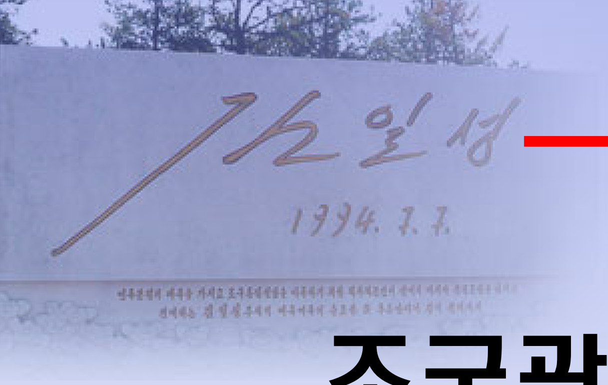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 창립선언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1.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 것.

2. 재만 조선인들은 조중민족의 친밀한 연합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만주국≫을 전복하고 중국영토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자치를 실행할 것.

3. 일본 군대, 헌병, 경찰 및 그 주구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진정하게 싸울 수 있는 혁명군대를 조직할 것.

4. 일본국가 및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 및 매국적 친일분자의 전체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독립운동의 경비에 충당하며 일부분으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할 것.

5. 일본 및 그 주구들의 인민에 대한 채권, 각종 세금, 전매제도를 취소하고 대중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 없이 발전시킬 것.

6.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취하고 왜놈의 공포정책실현과 봉건사상장려를 반대하며 일체 정치범을 석방할 것.

7. 양반, 상민 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 민족, 종교 등 차별 없는 인륜적 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여자의 인격을 존중히 할 것.

8. 노예노동과 노예교육의 철폐, 강제적 군사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우리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 것.

9. 8시간노동제실시, 노동조건의 개선, 임금의 인상, 노동법안의 확정,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 노동자의 보험법을 실시하며 실업하고 있는 근로대중을 구제할 것.

10.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연합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 친선을 유지할 것.

조국광복회 창립선언

국내국외의 동포형제자매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2천만 백의동포가 사랑하는 조국강토를 원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강탈당한지도 어언간 26년이 되였다. 우리 동포들은 일제의 식민지 폭압 밑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며 피땀을 흘리면서 짐승보다 못한 망국노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수많은 우리 동포들은 일제의 학정 밑에서 견딜래야 견딜 수 없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남부여대하고 유랑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산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까지 갔으나 외로운 그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고 짓밟히며 학살당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전대미문의 참담한 처지에 놓여있다. 조국강토를 강탈당하고 암담한 비운에 처하여 있는 우리 민족은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우리 민족앞에는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길밖에 없으며 오직 이 길로 나감으로써만 조국광복의 서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조국애에 불타는 수천 수만의 조선청년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다. 지금 전국각지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열렬한 애국사상은 지난날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반대하여 수많은 인민들이 의병운동에 참가하여 수년간 혈전을 벌이었으며 3.1운동 때에는 전 민족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반일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의 기개를 만천하에 시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민족이 절절한 자주독립사상과 열렬한 투쟁정신에 기초하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리라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희생되고 쓰러지면서 용감하게 싸워 왔지만 민족적 독립과 해방의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 주요한 원인은 조국의 광복을 위한 모든 운동이 통일적인 정치강령과 정확한 투쟁방침에 따라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반일애국역량의 공고한 통일



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 고군독전한데 있다. 그뿐 아니라 반일적인 나라 및 민족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공동의 적 일제를 반대하는 연합전선을 펴지 못한 것도 최후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이와 같은 쓰라린 교훈과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정치강령과 투쟁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 기본정치강령에 따라 이번에 국내와 국외의 모든 반일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고 그에 대한 통일적인 영도를 보장하기 위한 총 영도기관으로서 조국광복회를 건립하고 그 10대 강령을 채택하였다.

조국광복회10대 강령의 기본내용에 기초하여 국내국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전 조선민족은 계급, 성별, 지위, 당파, 연령, 종교의 차이를 불문하고 일치 단결하여 원수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싸워 조국을 광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우리 2천만 조선민족은 강도 일제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형언할 수 없는 민족적 압박과 학대, 가혹한 착취를 당하면서 망국노의 생활을 하고 있다. 조선민족의 해방위업은 모든 조선사람 앞에 나서고 있는 지상의 과업이다.

우리가 모든 차별을 논하지 않고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 민중이 일심동체가 되어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총동원된다면 일제놈들은 괴멸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은 이룩될 것이다.

2. 재만 조선인은 중국인들과 친밀히 연합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기구와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중국영토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재만 조선인의 민족적 자치는 강도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조중민족을 기만하고 이간시키기 위하여 선전하는 ≪간도자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모든 재만 조선인은 원수들이 선전하는 기만적인 ≪간도자치≫를 견결히 반대하며 중국의 반일민중과 친밀한 연계를 가지고 일 만 통치를 전복함으로써 재만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적 자치를 실현할 것이다.

3.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적 무장대오를 확대 강화할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발톱까지 무장한 간악한 침략자들이며 교형리들이다. 무장한 원수와는 반드시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더욱 강화하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적인 군중들로 각종 무장대를 조직하고 원수들과 맹렬한 혈전을 벌여 일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때려부셔야만 저주로운 식민지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다.

4.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경제 문화적 시책을 실시할 것이다.

강도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매국적 친일주구들의 공장, 광산, 토지, 상점, 은행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무조건 몰수하고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 없이 발전시키며 우리 인민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인격적 평등을 보장하며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자들에게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것이다.

조국광복위업을 순조롭게 진척시키기 위하여 민족적 양심을 가진 자본가들과 양심적인 애국 지사, 인사들로부터 조국광복을 위한 특별의연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다.

5. 조선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들과 친밀히 연합하여 원수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형성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 밑에 있는 피압박인민들과 친밀히 연합하여 강도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타도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동정하며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나라와 민족은 우리의 벗으로 여기며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도와주고 조선민족을 반대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로 대하여야 한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짐승과 같은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사람으로서 값있고 보람있게 살기를 바라는 동포형제자매들이여!

공장, 광산, 철도 그리고 각종 학교와 신문사, 병영과 상점을 비롯하여 도시와 농촌의 모든 곳에서 즉시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결성하고 조국광복회10대 강령의 기치 밑에 전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을 바라마지않는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치 단결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모두다 조국의 완전독립과 민족의 자유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조국광복회 만세!

5. 3.1월간

≪세기와 더불어≫ 제5권 14장 장백사람들



…

적들이 언론에 자갈을 물리고 국체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언동들을 총칼과 몽둥이로 가차없이 무찔러버리는 형편에서 혁명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선전활동은 부득불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유격전쟁에 가장 적합한 선전선동수단을 탐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우리가 최상의 수단이라고 생각한 ≪붓대포≫를 발사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에 밀영이 창설된 후 거기에 출판소를 꾸리고 조국광복회 기관지인 ≪3.1 월간≫을 창간하였다.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때 우리는 그 기관지의 발행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이라는 큰 그릇에 각계 각층의 민중을 다 담아가지고 항일대전을 거족적인 경지에로 끌어올리자면 ≪입대포≫나 ≪북대포≫도 잘 써먹어야 하지만 특히 ≪붓대포≫가 은을 내게 해야 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 민족통일전선을 위한 우리의 정치공작은 다분히 지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우리의 통일전선공작판도는 주로 만주지방과 조선의 북부지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국광복회는 그 판도를 조선전역과 중국본토, 일본, 쏘련,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은 해외의 모든 곳에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깃발을 날리려고 하였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각지에 공작원들을 자주 파견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공작원들의 수효는 제한되어 있었다. 유격투쟁의 초기부터 동만에서 통일전선운동을 많이 해본 군정간부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을 북만에 떼두고 오다나니 일군들이 부족하였다.

일군의 부족에서 오는 공간을 메꿀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도가 바로 출판물에 있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기관지를 잘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뿌리면 그 한부한부의 잡지나 신문이 곧 한명한명의 공작원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나는 확신하였다.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하여 기관지를 제때에 내오지 못하였다. 그 당시는 싸움도 많았고 유동도 심했다. 우리는 언제나 적의 사면포위 속에 있었다. 등짐을 지고 하루에도 수십수백리를 걸어야 했다. 적들은 우리에게 출판물을 발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백두산에 밀영이 창설되고 그 밀영에 출판소가 꾸려지게 된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조국광복회 기관지 ≪3.1 월간≫을 가질

수 있었다. ≪3.1 월간≫은 2천만의 총동원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는 조국광복회의 이념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담은 대중정치이론잡지였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의 사명에 알맞는 제호를 고르려고 애를 쓰다가 ≪3.1 월간≫이라는 네글자를 찾아냈다.

≪3.1≫은 3.1 반일인민봉기를 의미하였다. 3.1 인민봉기는 일제침략자들에게 거족적으로 대항해 나선 조선사람들의 장엄한 독립운동이였다.

그러므로 ≪3.1 월간≫이라는 제호는 민족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서 거기에는 우리가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고수하고 백두산을 타고앉아 전조선적인 판도에로 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킨다는 전략적 의도와 함께 온 민족의 총동원으로 전민항쟁을 마련해간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3.1 월간≫은 조국광복회의 기관지로 발간되었으나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기관지로서의 사명도 띠고 있었으며 온 나라, 온 민족을 상대로 하는 대중정치잡지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담당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잡지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나 공산주의혁명가들만이 아니라 민족부르조아지나 종교인들, 독립군 병사들까지 다 읽고 사랑하는 범민족적인 잡지로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비서처 성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3.1 월간≫ 편집부를 꾸리고 주필로 기자경력을 가진 이동백을 임명하였다.

이동백의 주관하에 편집성원들은 창간호 발간준비를 본격적으로 밀고 나갔다. 그들은 잡지의 편집방향과 출판실무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논의를 많이 하였다. 이상적인 편집형식을 탐구하기 위하여 국내출판물들에 대한 연구도 진지하게 하였다.

그 당시 국내출판계에서는 신문과 잡지들의 폐간, 정간 바람이 사납게 불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애국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잡지들은 무조건 탄압을 당하고 폐간되어 사실 참고로 삼을만한 잡지라고는 몇 종 되지 않았다.

≪3.1 월간≫ 편집성원들은 참고적으로 국내잡지들을 들춰보았지만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거나 본따려고 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창발적으로 새롭게 탐구하였다.

우리는 ≪3.1 월간≫을 대중정치이론잡지형식을 갖추게 하고 애국애족과 민족대단합에 관한 사상으로 그 내용을 일관시키기로 하였다. 매호에 사론설을 주는 외에 ≪우리 민족 조국광복운동의 새 소식≫, ≪반일민족혁명전선 각지 승리소식≫, ≪문답란≫, ≪조국요문≫, ≪국제요문≫, ≪문예란≫ 등 고정란들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비서처가 속해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 안의 필진들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지에서 활동하는 인민혁명군 부대들과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통하여 수집하도록 하였다. 원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동만, 남만, 북만의 주요지점들에 ≪3.1 월간≫잡지의 특파원들을 두었으며 광범한 독자들의 투고를 장려하였다.

어떻게 하면 ≪3.1 월간≫ 편집사업을 독자대중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는가, 어떻게 하면 각계각층의 독자들이 잡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원고를 제공하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독자들이 편집내용을 풍부히 하고 편집형식을 부단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을 보내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모색하던 끝에 이동백은 투고규정이라는 것을 고안해냈다.

그가 만든 투고규정을 읽어보니 구미가 동하였다. 그 규정을 읽으면 글재간이 둔한 사람도 붓을 들고 그 무엇인가를 일사천리로 쓰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어있었다. 그 규정의 앞머리에는 각계 애국지사의 명론탁설을 수집하기 위하여 투고를 환영한다는 청탁문이 실려있었고 그 뒤로는 원고내용에 따르는 글자의 수와 투고방법, 열성투고자에 대한 우대적용 등의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조직선을 통해 그 규정을 내려보내고 창간호에도 ≪투고환영!≫이라는 제목을 달고 소개하였다.

투고규정을 내려보낸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서 원고들이 많이 날아들어왔다. 그 원고들을 받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던 ≪대통영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도 투고된 형형색색의 글들을 기쁜 마음으로 거의다 읽어보았다.

양세봉독립군의 참모장이 보내온 축하편지에도 조국광복회 창립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그들의 심정이 절절하게 반영되어 있었지만 남만에서 조국광복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던 이동광과 상해에 거주하고 있던 박아무개 교포대표와의 상봉소식을 적어보낸 글도 매우 인상적이였다. 상해교포대표는 북경, 천진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곳에서 다년간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조국광복회 창립소식을 듣고 남만에까지 찾아와서 국내외에서 조국광복회를 축으로 통일적인 전선을 전개할 데 대한 건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조국광복회 조직을 중국본토의 광활한 지역에 뻗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우리는 그 원고를 받자 곧 유능한 정치일군 한 사람을 이동광에게 파견하였다.

이처럼 ≪3.1 월간≫의 발간준비과정에 편집부는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강화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통신처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였다.

조국광복회의 한 구위원회가 인민혁명군을 고무하기 위하여 축기를 준비하면서 보내온 편지도 역시 감동적인 사연으로 엮어져 있었다.

≪...애국동포들의 열렬한 동정에 의하여 자기의 빈약한 호주머니에서 1전, 2전 혹 은 1원씩을 거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모은 총액은 8원 71전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군수품을 사서 보내려고 하여도 너무나 약소하기 때문에 우리들과 전체 애국동포들의 의견에 의하여 환영기를 만들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성의껏 보내온 그 편지들을 모두 창간호 지면에 싣게 하였다.

창간준비를 하면서 제일 걱정하던 원고들이 예상외로 넉넉히 마련되자 ≪대통영감≫은 신바람이 나서 돌아갔다. 하루는 그가 사령부에 나타나 싱글벙글하면서 내앞에 여라문장의 백지를 불쑥 내놓았다.

≪다른 원고밑천은 든든합니다. 이제는 제일 중요한 창간사와 논설만 있으면 편성에 들어가겠는데 그것들은 아무래도 조국광복회 회장동지가 써줘야 하겠습니다. 여기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주필은 무얼 하겠습니까. 문장가로 소문난 주필선생이 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제가 밀어제끼고 그 자리를 가로타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간사야 응당 주필선생이 맡으셔야지요.≫

나는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수난의 길을 걸어온 그 성실한 문필가에게 창간사를 맡기어 가슴에 쌓였던 망국의 설움을 마음껏 터치고 2천만 겨레를 향하여 내뿜고싶었던 불같은 말들을 실컷 외치게 해주고싶었다. 그래서 그에게 기어이 창간사를 떠맡기였다.

그대신 나는 ≪3.1 운동의 회고≫라는 제목의 논설을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바쁜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원고를 제때에 써주지 못하였다. 어쩌다 짬을 내어 집필을 시작하던 때에 공교롭게도 밀정을 잡았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적 ≪토벌대≫가 우리 밀영쪽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통보가 들어와서 전장으로 출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당시 내가 제일 그리워던 것은 김혁과 최일천이였다. 카륜과 오가자 시절의 막역지우들이였던 ≪볼쉐위크≫의 주필 김혁과 ≪농우≫의 주필 최일천은 쌍벽을 이루는 재능있는 문장가들

이었다.

시인인 김혁의 글이 범람하는 장강처럼 호방하고 격동적이였다면 최일천의 글은 민족적인 색채가 짙으면서도 지성도가 높고 분석이 예리하였다. 김혁은 ≪볼쉐위크≫에 자기가 순수 작사, 작곡한 혁명적인 노래들도 이따금 편집해넣곤 하였다. ≪볼쉐위크≫에 내보낸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자본주의사회 저주가≫와 ≪반파벌가≫이다.

≪자본주의사회 저주가≫는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착취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노래였고 ≪반파벌가≫는 감자도장이나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등에 업혀 당을 창건하려고 하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정체를 예리하게 발가놓은 풍자가요였다.

김혁이나 최일천이 우리 곁에 있었다면 ≪대통영감≫의 부담을 적지 않게 덜어주었을 것이다.

나는 3.1 운동에 대한 회고논설도 조국광복회 창립문건도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대본들처럼 적들과의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짬시간을 내여 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3.1 월간≫ 창간호 발간준비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 것은 출판기자재의 구입이었다. 그때 우리에게는 낡은 등사기 한대밖에 없었다. 등사잉크도 로라도 등사원지도 종이도 다 부족하였다. 출판소의 일군들은 부족한 그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였다. 등사잉크가 떨어지면 양철로 고깔을 해씌우고 봇나무껍질을 태우면서 고깔에 붙은 그을음을 긁어모았다. 그 그을음을 기름에 재웠다가 공장에서 만들어낸 등사잉크와 섞어 사용하였다. 로라가 못쓰게 될 때에는 아교에 송진을 섞어서 끓여가지고 형틀에 부어 만들어냈고 강필이 못쓰게 되면 돗바늘을 가지고 만들어 썼다.

≪3.1 월간≫을 위해 바친 그들의 피어린 노력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표본으로 내세울만한 것이었다.

그 노력은 마침내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 1936년 12월 1일 ≪3.1 월간≫ 창간호가 마침내 세상에 탄생한 것이다.

그 날 ≪대통영감≫은 맨처음으로 제책된 창간호 한부를 들고 와서 말하였다.

≪덧없이 흘러간 나의 한생에서 그래도 값있는 일을 한 것이 있다면 ≪3.1 월간≫ 창간 호를 만든 것입니다. 장군님, 바쁘시더라도 ≪3.1 월간≫의 고고지성을 한 번 들어봐주십시오.≫

그는 격정에 넘쳐 창간사의 첫 대목을 읽었다.

≪우리 조선이 강도왜놈들에게 강점되어 2천 3백만 백의민족이 일제의 망국노예로 된 후 우리들의 생명과 인권은 개나 돼지만큼도 못하였다.≫

≪3.1 월간≫은 발행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창간호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반영이 대단하였다. 각 지방의 조국광복회 조직들에서는 ≪3.1 월간≫의 발행을 축하하는 환영인사와 함께 배포부수를 늘여줄 것을 요구하는 청탁편지들을 보내왔다. 조직의 명의로 다음호의 잡지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3.1 월간≫ 발행에 필요한 출판기자재 명세를 작성해가지고 그 해결방도를 한창 모색하고 있을 때 박달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성능좋은 새 등사기 2대를 해결하였다. 단천역에 도착한 등사기를 각각 한 대씩 감자포대안에 넣어가지고 달구지로 갑산까지 운반하였는데 경찰의 감시가 심해서 산속에 종일 숨어있다가 밤이 깊어서야 민족해방동맹 출판부가 자리잡고 있던 오풍동에 가져갔다고 한다.

박달은 처음에 그 등사기를 다 우리 밀영에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한 대만 우리가 쓰고 한 대는 갑산에 떨구어 조선민족해방동맹 기관지를 발간하게 하였다. 조선민족해방동맹에서는 ≪화전민≫이라는 제호로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었다.

박달이네가 구해보낸 등사기의 성능이 아주 좋았다. 낡은 등사기를 사용할 때보다 능률이 몇배나 높아 다음호부터는 잡지를 수백부씩 밀어냈다.

≪3.1 월간≫의 인기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였다. 독자들이 이 잡지를 애독한 것은 편집형식이 참신한 데도 있었지만 주로는 그 내용이 민족통일전선의 사상으로 일관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 잡지가 민족 앞에 나선 시대적 과제를 가장 민감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의 파쑈적 공세에 대처하여 조선의 혁명가들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묶어세워 전민항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3.1 월간≫이 발간되면서부터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인민혁명군 참군자들의 대열과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 대열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한두방의 ≪붓대포≫가 이렇게도 큰 힘을 내는가 하고 그 ≪붓대포≫의 임자들조차도 놀랄 지경이였다.

박인진은 언제인가 권영벽을 만난 자리에서 영북의 거의 모든 천도교인들을 단시일내에 조국광복회 조직망에 망라시키는데서는 ≪3.1 월간≫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3.1 월간≫을 만들어내는데서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공로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동백이다.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때에도 그의 수고가 적지 않았지만 ≪3.1 월간≫의 창간과 발행에 바친 그의 수고에는 비길 바가 못된다. 그는 인생말년을 완전히 ≪3.1 월간≫과 함께 살았다.

나는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대통영감≫만큼 종이를 아껴쓰는 사람은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그는 나뭇잎사귀만한 종이도 다 건사해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글씨를 깨알같이 박아가며 아주 요긴하게 쓰고는 하였다. ≪대통영감≫은 글을 쓸 수 있는 백지에 담배를 말아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종이를 아낄 줄 모른다고 호되게 비판하였다. 그 자신은 늘 대통으로 담배를 피우곤 하였다. 그가 대통에 담배를 담아 피우게 된 동기도 종이를 아끼려는데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사연은 어찌 되었든지간에 그 대통이 이동백으로 하여금 퍼그나 많은 종이를 절약하게 한 것만은 사실이다. 만일 그 대통이 없었더라면 그는 일생동안 수천매에 달하는 종이를 소비하였을 것이다.

조국이 해방되면 우리의 항일혁명투쟁사를 써야겠다고 하면서 단 하루도 번지지 않고 일기를 썼고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료들을 부지런히 모아서 배낭 속에 정히 간수하던 ≪3.1 월간≫ 주필 이동백은 양목정자 밀영에서 적 ≪토벌대≫의 불의습격을 받고 희생되었다. 적들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노약자들과 함께 ≪대통영감≫을 사살하고 밀영에 불을 질렀다. ≪대통영감≫이 귀중히 여기며 고이 보관해왔던 많은 문건들과 사진자료들, 일기책들이 그때 그의 육신과 함께 불타서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가 독립된 조국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여겨오던 그 역사자료들이 하루아침 사이에 재가되어 날아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통분함을 금할 수 없다. 그 큼직한 보따리들 속에서 그가 쓴 일기책들만이라도 남아있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훗날 양목정자 밀영에 갔을 때 나는 불탄 초막자리에서 그의 유골을 찾아 손수 안장해주었다. 생전에 이동백이 그처럼 애용하던 대통만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의 유물로 남겨둘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은 것은 그 결출한 늙은 인테리혁명가에 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감회깊은 추억뿐이었다. 그런데 몇해전에 백두산밀영이 발굴되면서 그의 필적으로 된 구호나무들이 발견되었다. 나는 마치 살아있는 ≪3.1 월간≫의 주필을 만나보는 것 같아 그 구호나무앞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

매혹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2일~24일



푸른 초여름 하늘 남북정치인들의 만남. 그때의 충격, 환희, 감격. 아직도 가슴이 막 쿵쿵 뛰고 울렁거리는 거 있죠. 그때 **김정일** 장군님의 위인상에 온 남녘이, 전 세계가 매혹됐죠. 충격에 이어 매혹. 과연 무엇이 만사람을 그렇게 매혹시켰을까요. 민족미래연구소 박진씨의 글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김혜정씨입니다.

매혹이라 함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넋을 깡그리 현혹케 하는 감정정서의 발현이다. 인간생활은 천태만상이고 인간관계도 천차만별이다. 그중에서 어떤 인간에게 만사람이 매혹된다는 것은 흔치않다. 하지만 오늘 7천만 겨레와 인류는 가장 숭고한 매혹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인류가 하나같이 아낌없는 찬사와 경탄을 보내는 절세위인에 대한 최고의 매혹이다. 그분은 바로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이시다.

장군은 비범하고 특출한 사상이론과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덕망을 지니시고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인중에 위인이시다.

장군처럼 걸출하고 뛰어난 위인은 행성에 없다. **김정일**장군은 탄생부터가 성스럽고 거룩하셨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장군께서

백두산에서 탄생하실 때 벌써 ≪광명성≫이라는 아호를 드렸다.

오늘 장군은 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태양으로 21세기의 가장 노련한 정치가로 칭송받고 계신다. 장군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마음담아 우리 겨레와 진보적 인류가 그분께 올리는 존칭은 무려 125개나 된다고 한다.

온 겨레와 인류의 양심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의 마음담아 삼가 드린 존칭. 거기에는 출중한 실력과 비범한 영도력, 고매한 덕망을 한몸에 체현하신 장군의 위인적 풍모에 매혹된 열화와 같은 숭배심이 뜨겁게 어려있다 하겠다.

***** 일군이 될 수 없다는 격언도 있다. 유명한 이들이 제한된 구내나 영내에서만 인재로 된다는 뜻도 있다 한다.

아무리 뛰어난 위인이라 하더라도 문무재덕을 다 겸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은 만사에 능통하신 다면의 천재이시다. 사상이론에서 뛰어나시고 정치에서 능숙하시고 군사에서 비범하시고 경제와 과학기술에 박식하시며 외교에서 원숙하시고 인간적으로 자애 깊으신 위인중에 위인이시다.

그분께서 일찌기 이북의 문화예술을 지도하실 때 그 부문에는 한다하는 문학인으로, 문장가로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장군의 비범한 예지와 예술적 경지에는 머리를 숙였을 뿐 아니라 그분께 매혹되어 문학예술의 영재로 대칭송하고 따르고 모신다고 한다. 장군의 비범한 실력을 보여주는 일화라 하겠다.

매혹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북 민중이 장군만을 믿고 받들어가고 있는 것은 장군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절감하고 그에 진심으로 매혹된데 있다. 솔직히 말하건데 최근 수년간 이북은 역사에 유례없는 험로역경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생사기로에 놓인 적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 준령을 앞장에서 단신으로 맞받아 타개하신 분은 **김정일**장군이시다. 장군이 아니셨다면 이북은 열백번도 더 거꾸러졌을 것이다. ≪**김정일**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이북민의 이 숭고한 믿음은 바로 실천을 통해 터득한 장군의 위대한 영도력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군의 선군영도가 있어 북은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시켰다. 인공위성의 발사로 세계를 놀래웠고 강성대국건설의 일대 도약대를 마련하고 비약의 나래를 펴고 있다. 행성을 굽어보며 무한대한 우주를 누빈 이북의 인공위성은 장군의 걸출한 영도의 결실이였다. 그래서 이북 민중은 자체의 지혜와 힘으로 조작하여 쏴 올린 이 거대한 창조물에도 장군에 대한 절절한 흠모심을 담아 ≪광명성1호≫라고 명명하였다. 영생불멸의 위인송가의 선율이 위성과 함께 누리에 울려퍼지게 하여 만인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만인을 품어주는 대해같은 도량을 지니신 장군의 덕망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매혹시키게 했는가. 장군의 햇빛같은 미소, 누구든 한번만 뵈어도 가슴 설레임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분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한번만 들어도 가슴 후련함을 억제할 수 없다.

≪**김정일**장군은 지성적이고 친절하며 예절바른 매력적인 지도자이시다≫, 이 말은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 정주영씨가 **김정일**장군을 만나뵙고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에 쌓여 토로한 목소리이다. 어찌 그만이랴. 그분의 출중한 흠모에 온 겨레가 매혹되었던 역사적인 평양상봉. 바로 여기에 통일의 이정표를 남겨주신 6.15남북공동선언채택시 민족과 인류는, 온 겨레가 **김정일**열풍에 환호하지 않았던가. 그분은 순간에 이남 국민을 사로잡으셨고 세계를 매혹시키셨다. 장군께 반하지않은 사람이 없었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세계가 진실로 북조선 지도자께 매혹되었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과 인류는 장군의 출중한 위인상과 한량없는 인정미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 주석단에 초대된 쿠바 군사대표단 단장을 만나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

김정일장군의 거룩한 존함과 존귀한 영상, 불멸의 업적은 위도와 경도, 대양과 대륙을 넘어 세인의 마음속에서도 찬연히 빛나며 그들을 한없이 매혹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거대한 사회주의의 태양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고 있다. 자연계의 태양계에는 일식현상이 있어도 **김정일**태양계에는 단 0.001초의 일식도 없을 것이며 태양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러시아인사 빅토르 안틀루스의 이 칭송 하나만으로도 장군의 위인상에 매혹된 인류의 격동된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며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 계시는 그분의 높으신 권위에 매혹되어 세계의 명성있는 언론들이 장군관련 기사를 제일먼저 보도할 목표를 세우고 맹렬한 전파전, 언론전을 벌이고 있다. 장군께서 지난해 러시아연방을 방문하실 때 일약 수백개의 신문, 통신방송이 장군의 5만여리 장정을 예의주시하며 감동과 환호를 올렸다. 세계 연300여억 인류가 20여일간의 방문기간을 TV와 함께 보내며 장군께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세계 정치사상 한나라 정상의 외국방문이 이렇듯 열광적인 감동과 환호를 받아본 적이 언제 있었던가.

오늘 세계 각국의 수반들과 저명인사들은 장군께 다함없는 흠모가 어린 선물을 삼가 드리고 최고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연이어 수여해드리고 있다. 수많은 단체와 대상들에도 새로 **한 진귀한 꽃에도 그분의 존함을 모시고 있다. 장군에 대한 매혹에서 비롯된 시대의 당연한 흐름이라 하겠다.

참으로 만인의 존경을 받으시는 **김정일**장군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것은 우리 겨레의 더없는 행운이고 무상의 행복이다. 장군을 민족의 어버이로 모시어 민족의 앞날은 희망차고 밝다. 우리 겨레는 위인에 대한 매혹속에 사는 영광을 천세만세 노래하며 무궁번영의 새역사를 창조해 갈 것이다.

좋은 글 보내주신 박진씨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군님에 대한 매혹, 그것은 그 누구의 강요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느껴서 우러르게 되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게 아닐까요.

민족대단결, 그 뿌리

김수학 / 구국전선 주체89, 5월 1일

오늘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민족대단결은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여 민족의 총력을 통일성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책이며 민족대승의 길이다.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대단결의 훌륭한 전통을 마련한 조국광복회창립 64주년에 즈음하여 조국광복회가 이룩한 역사적 공적과 경험을 다시 새겨보는 소의가 여기에 있다.

조국광복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구세제민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25(1936)년 5월5일에 창립하신 우리 나라 최초의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이다.

조국광복회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고 그 알찬 결실이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시였다.

> **≪자주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전민항쟁에 있고 민족대단결이 자력독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주장해온 사상이였다. 통일전선은 주체확립과 더불어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견지해온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민족대단결과 통일전선의 숭고한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여러 갈래의 민족주의세력과 반일애국역량과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였고 중국땅에서 투쟁하는 여건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반일역량과의 공동투쟁도 벌이시였다. 이 과정에 항일무장대오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 범위에서 벌여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귀중한 경험도 축적되였다. 더욱이 주석님께서 항일무장투쟁과 민족의 총력을 광복전선에 결집하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을 현명하게 영도하시는 과정에 민족의 구원자,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으로서의 권위를 확고히 지니시게 된 것은 통일전선운동을 전민족적 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 조건으로 되였다.

성숙된 주객관적 정세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체를 결성하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는 것은 당시 분산적으로 진행하던 통일전선운동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되기 전까지 통일전선운동은 국내와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 수많이 조직된 공청과 노동조합, 농민협회, 부녀회와 같은 계급, 계층별 대중단체와 반제동맹, 반일회와 같은 통일전선형태의 대중단체들을 통해 각계각층 군중을 항일의 기치밑에 결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조직이 없었기에 통일전선운동은 분산성을 면할 수 없었다. 이같은 한계성을 극복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모든 반일역량을 통일적으로 결속하고 지도하려면 포괄적이고 전일적이며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가 있어야 했던 것이다.

김일성주석님에 의한 조국광복회의 창립으로 항일무장투쟁을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내 깊이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전략적 단계에 상응하게 통일전선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민족사적 요청도 실현되게 되고 통일전선운동 자체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도 만족되게 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위대한 주석님의 유일적 영도밑에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국적 범위에서 보다 조직성있고 체계성있게 전개되게 되였으며 모든 반일역량을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게 되였다.

조국광복회는 그 취지와 목적이 반일적이고 애국적인 것으로 하여 특히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익 뿐 아니라 각계각층 민중의 이해관계를 폭넓게 수렴하고 집약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하여 전민족을 하나의 광복전선에 결집하는 강력한 구심체로 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된 후 불과 몇달사이에 장백현일대에는 분회, 지회들로 연결된 정연한 조국광복회조직망이 형성되었으며 1937년 2월에는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산하에 3개의 구위원회와 20개의 지회 그리고 수많은 분회들이 조직되였다. 1936년말에는 갑산지방에 조직되었던 반일대중단체인 갑산공작위원회가 ≪조선민족해방동맹≫이라는 명칭의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조직망은 갑산, 삼수, 풍산을 비롯한 북부국경일대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였다. 조국광복회조직은 함경남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철원, 평강, 후창, 동흥, 신의주, 평양, 남포,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각지에 뿌리를 내렸으며 멀리 일본 땅에까지 뻗어나갔다.

참으로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민족해방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은 전환점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민족대단결의 뿌리와 전통을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밝은 서광을 비쳐준 민족사적 사변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친히 기초하시고 한자한자 다듬어 완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은 거기에 관통되어 있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이념으로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이 중대한 과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에 체현되어 있는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여 작성,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으로서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를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 투쟁에로 힘있게 부르고 있다.

조국광복회창립의 역사적 경험은 민족의 대단결은 그 구심이 될 위대한 영수를 모실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 겨레는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영수로 모시고 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이룩하신 민족대단결의 전통과 경험을 살려 7천만 겨레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민족대단결의 조직체 조국광복회

구국의 소리 주체90, 5월 4일～5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찌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날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고 그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조국의 광복과 민족대단결을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주석님의 노고는 오늘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그 노고와 불멸의 업적 돌이켜 보죠.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다시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 객관적 여건들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셔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할 데 관한 노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해 오시지 않았어요. 특히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 25 (1936)년 5월 5일 첫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설하신 것은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서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조국광복회 창립 65돌이 되는 이 시점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기 위해 기울이신 노고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정원 : 당시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는 것은 혁명정세발전의 필수적 요구였어요. 1930년대 중엽의 정세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강화발전할*** 유리하게 ***조선민족에 대한 일제의 파쇼적 행각이 어느때보다 더욱 악랄하게 **서 우리 민족이 *** **** 이건 반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성숙되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의 결성은 국제정세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것이었어요.

사회자 : 네, 내외정세의 발전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를 내오는 걸 한시도 지체할 수 없게 했죠.

윤정원 : 네, 그래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당시 조성된 정세와 통일운동전선자체의 발전의 요구, 그리고 1930년대 전반기 통일전선운동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셔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 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셨거든요. 그분께서는 주체 25 (1936)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영안현 남호두에서 개최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하신 보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고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하며 당창건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방침과 함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 범위에서 더욱더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셨어요.

사회자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기 위한 방침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 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키며 전반적 항일혁명투쟁의 군중적 기반을 축성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은 주체적이고 과학적인 방침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윤정원 : 그렇죠.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은 우선 계급계층별 대중조직들과 통일전선적 대중조직들을 통해서 진행하던 통일전선운동을 포괄적이고 전일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를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그 발전에서 분산성을 극복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했어요. 또 반일민





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당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자 : 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를 결성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신 후 고요한 서재나 연구실에서가 아니라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간고한 행군노정에서 연속되는 전투를 조직지휘하시면서 조국광복회 10대 강령과 조국광복회 규약, 조국광복회 창립선언을 작성하셨고 그에 기초하셔서 주체 25 (1936)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무송현 동강에서 역사적인 조국광복회 창립대회를 개최하셨잖아요.

윤정원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창립대회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자≫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셨고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의 10대 강령과 조국광복회 창립선언을 대회의 심의에 제출하셨어요.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은 주체사상을 구현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대외관계의 과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있었죠.

사회자 : 조국광복회가 이전에 존재했던 일련의 통일전선연합체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윤정원 : 역사를 소급해보면 지난 시기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서 인민전선이라는 것이 결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들은 정당, 단체들간의 일시적인 통일전선연합체였어요. 그렇지만 조국광복회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중심으로 각계층의 광범위한 애국역량을 하나의 조직에 결속한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이였어요. 바로 여기에 조국광복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조국광복회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중심으로 온 민족이 단합을 실현하고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했는데 조국광복회 창립과 그 투쟁업적이 말해주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그거는 단결의 중심이 위대하고 확고할 때라야 민족은 가장 공고하고 폭넓은 단합을 이룩할 수가 있고 자기 운명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그겁니다.

사회자 : 네, 우리 민족이 지난날 망국노의 처지에 놓이게 된 건 단결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과거의 민족해방투쟁과 초기공산주의 운동도 사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파쟁으로 사분오열되며 실패를 면치 못한 것도 올바른 영수를 모시지 못하고 단결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윤정원 : 바로 그렇죠. 신간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의주장의 차이로 옥신각신하던 초기공산주의자들과 민족운동가들이 뒤늦게 나마 통일단합의 필요성을 깨닫고 발족시킨 조직이 신간회였잖아요. 그런데 몇 년 못 가서 해산되고 말았죠.

사회자 : 그렇죠. 구심점이 없는 단합이었으니까요. 그런 단합은 진정한 단합이 될 수 없는 거죠.

윤정원 : 네, 그래서 우여곡절과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이 전민족적인 성전으로 발전할 수 있은 건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셨기 때문이죠. 조국광복회 창립대회에선 조선민족의 ***와 염원을 담아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했고 조국광복회 창립 후엔 광범위한 민중이 그분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조국광복성전에 나서서 그분의 영도를 **하게 받들어 나갔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심으로 해서 민족사상 처음으로 진실로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강위력한 통일전선의 첫 모습이 창조된 겁니다.

사회자 : 네, 조국광복회는 위대한 영수를 중심에 모시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당한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자기의 조직망을 국내 깊이는 물론이고 만주와 심지어 일본의 여러 조선인 거주지역에 늘여 나갈 수 있었는데요. 조국광복회의 창립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참으로 거대한 것이 아니겠어요.

윤정원 : 그렇죠.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이 되어서 전국적 범위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있게 빨리 발전하게 됐구요. 모든 반일역량을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 **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됐어요. 조국광복회의 *** 그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반일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의지를 ****한 역사적인 계기였어요. 항일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끈 전환점으로 됐습니다.

사회자 : 네, 들으면 들을수록 조국광복과 민족대단결을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노고가 가슴 뜨겁게 안겨오는데요. 우리 민중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똑같으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신 자긍심을 깊이 간직하고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세상만물에 차별이 없이 태양의 밝은 빛과 열을 주듯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민족구성원 모두를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주시고 애국애족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조국광복회의 창립의미와 역사적 경험

김수학 / 구국전선 주체90, 5월 1일

≪민족의 운명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애국역량의 단합과 거족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김일성)

오늘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민족대단결은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여 민족의 총력을 통일성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책이며 민족대승의 길이다.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대단결과 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한 조국광복회 창립 65주년을 맞으며 조국광복회의 창립의미와 역사적 경험을 다시 새겨보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조국광복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님께서 주체25(1936)년 5월5일에 창립하신 우리 나라 최초의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이다.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김일성**주석님의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었고 그 알찬 결실이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시었다.

≪자주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전민항쟁에 있고 민족대단결이 자력독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주장해 온 사상이었다. 통일전선은 주체확립과 더불어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견지해 온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였다.≫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면 그것을 지키고 빛내이는 길은 오직 하나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고 합심협력하여 투쟁하는데 있다. 그런데 민족의 대단결은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공고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일전선이라는 하나의 큰 그릇에 각이한 계급, 계층의 민족구성원들을 다 담아가지고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거족적으로 벌여야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주석님께서는 민족대단결과 통일전선의 숭고한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시어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여러 갈래의 민족주의세력과 반일애국역량과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를 바치시었다. 그리고 중국땅에서 투쟁하는 여건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반일역량과의 공동투쟁도 적극적으로 벌이시었다. 그 과정에 항일무장대오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 판도에서 벌여나갈 수 있는 토대가 축성되었으며 귀중한 경험도 축적되었다. 더욱이 주석님께서 항일대전과 민족의 총력을 광복전선에 결집하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과정에 지니시게 된 절대적인 영도적 권위는 주석님을 유일중심, 구심점으로 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대단결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조건으로 되었다.

성숙된 주객관적 정세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체를 결성하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했다. 상설적인 통일전선체를 내오는 것은 당시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통일전선운동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이 운동에 대한 통일적,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되던 1936년으로 말하면 위대한 주석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내 깊이까지 확대할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고 국경지대와 백두산지구로 진출하시던 때였다.

김일성주석님에 의한 조국광복회의 창립으로 새로운 전략적 단계의 요구에 상응하게 통일전선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민족사적 요청도 실현되게 되고 통일전선운동자체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도 만족되게 되었던 것이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위대한 주석님의 유일적 영도밑에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국적 범위에서 보다 조직성있게 체계적으로 전개되게 되었으며 모든 반일역량을 하나의 광복전선에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조국광복회는 그 취지와 목적이 반일적이고 애국적인 것으로 하여 특히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노농대중의 이익 뿐아니라 각계각층 민중의 이해관계를 폭넓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전민족을 하나로 결집하는 강력한 구심체로 되었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된후 불과 몇 달사이에 장백현일대에서는 정연한 조국광복회조직망이 형성되었는데 1937년 2월에는 그 산하에 3개의 구위원회와 20개의 지회 그리고 수많은 분회들로 이루어진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가 출범했다. 1936년말에는 갑산지방에서 활동하던 반일대중단체인 ≪갑산공작위원회≫가 ≪조선민족해방운동≫이라는 명칭의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조직망은 갑산(오늘의 혜산지방도 포괄), 풍산, 삼수를 비롯한 북부국경일대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조국광복회 조직은 함경남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철원, 평강, 후창, 동흥, 신의주, 평양, 남포,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 뿌리를 내렸으며 멀리 일본땅에까지 뻗어나갔다.

참으로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민족해방투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은 역사적 전기로 되었을 뿐아니라 민족대단결의 훌륭한 전통을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밝은 서광을 비쳐준 민족사적 사변이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친필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은 거기에 관통돼있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이념으로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의 대단결이중대한과제로나서고있는오늘에도강인한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주석님께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에 체현되어 있는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여 작성,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으로서 7천만 겨레를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 투쟁에로 힘있게 부르고 있다.

조국광복회창립의 역사적 경험은 민족의 대단결은 그 구심이 될 위대한 영수를 모실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 겨레는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대단결의 구심점,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도따라 통일성업을 완성하는 민족사의 새 시대, 통일시대를 맞이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이룩하신 민족대단결의 전통과 경험을 살려 7천만 겨레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해방후 근로단체의 조직과 통일전선운동

현대조선역사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워야 했다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 것은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중요하지만 해방직후 우리 나라의 정세에 비추어 그것은 특별히 긴요한 문제로 나섰다. 당시 인민대중은 건국열의로 들끓었으며 그들의 기세는 대단히 높았다. 그런데 형형색색의 정치적 투기분자, 혁명의 배신자, 민족반역자들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대중을 기만하여 그릇된 길로 이끌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우고 옳게 이끌어나가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가장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김일성은 이 모든 것을 통찰한 데 기초하여 대중를 결속하는데서 선차적인 것은 사회단체들, 근로단체들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보고 계층별, 직업별로 유일한 조직체계에 따라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는 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사회단체들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입니다. 사회단체들의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만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조직하고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 수 있으며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영도를 옳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계층별로 또는 직업별로 유일한 조직체계에 따라 사회단체들에 묶어세워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해방후 근로단체조직사업은 **김일성**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힘있게 진행되었다.

혁명의 영도계급인 노동계급을 묶어세우기 위하여 1945년 11월 30일 직업동맹이 조직되었으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그 산하조직들이 결성되었다.

1946년 1월 31일에는 농민들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대중단체인 농민동맹이 결성되었다.

대중단체조직에서 모든 청년들을 통일적인 청년단체에 결속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도 복잡한 문제로 나섰다.

당시 각 지방들에는 공산주의사상을 신봉하는 무산청년들의 청년조직인 공산주의청년동맹과 함께 ≪해방청년동맹≫, ≪학생동맹≫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청년단체들이 조직되어 제각기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반동들은 청년들을 분열시키며 그들을 반혁명의 길로 이끌려고 책동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각계각층은 청년들을 단일한 청년조직에 묶어세우는 것이 중요하였다.

김일성은 청년운동의 이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고 모든 애국청년들을 하나의 조직에 결속하기 위하여 ≪애국적 청년들은 민주주의 깃발아래 단결하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공산주의청년동맹을 민주청년동맹으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1월 17일 단일한 대중적 청년단체로서의 민주청년동맹이 결성되게 되었다.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함으로써 청년운동의 분열을 방지하고 광범한 애국청년들을 민주주의 깃발아래 굳게 결속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의 대중조직으로서의 민주여성동맹이 1945년 11월 18일에 결성되었다.

이밖에도 문학예술총동맹, 공업기술총동맹, 기독교도연맹과 불교도연맹 등 여러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이와 같이 극히 짧은 기간에 각계각층의 대중단체,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어 300여만의 군중을 묶어세울 수 있게 되었다.

대중단체조직사업과 함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이 힘있게 전개되었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은 물론, 지식인, 종교인들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까지 포함한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적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해방후 북조선에는 중소자본가들과 기독교들을 망라한 민주당(1945. 11. 3)과 천도교의 교도들(주로 농민들)로 조직된 천도교청우당(1946. 2. 8)이 나왔다. 그리고 인텔리들과 농민들(주로 중농들)을 망라한 신민당이 조직되었다.

김일성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공산당은 반제민족자주의 원칙과 반봉건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 당들과 적극 연합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였다. 이 통일전선은 물론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통일전선과는 형태상 다른 정당, 사회단체들의 연합전선 형태의 통일전선이였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는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 예속자본가를 제외한 모든 계급, 계층이 망라되였다.

통일전선에 반동분자, 파괴분자들이 잠입하여 와해공작을 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돌려졌다. 통일전선운동은 어디까지나 극소수의 반동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며 그와 비타협적으로 전개되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각계각층의 연합과 독자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각계각층의 독자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민족적 연합을 실현할 때에만 참말로 공고한 통일전선을 이룩할 수 있으며 전체 인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 사회를 빨리 건설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각 정당, 사회단체들, 계급, 계층들의 연합과 독자성의 어느 하나만을 내세우고 다른 것을 무시할 때에는 통일전선운동에서 적극성과 자원성이 마비되거나 단결이 파괴될 수 있으며 결국 통일전선이 바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오직 연합의 대전제를 고수하는 기초위에서 독자성이 허용되어야만 통일전선이 참으로 공고한 산 조직으로, 힘있는 투쟁의 조직으로 될 수 있었다.

이처럼 **김일성**의 현명한 영도밑에 북조선에서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광범한 애국적 민주역량을 단합시킬 수 있었으며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고 새 나라, 새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 정당, 사회단체들의 행동통일을 훌륭히 보장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

현대조선역사

김일성의 현명한 영도밑에 북조선에서는 통일전선운동이 급속히 강화발전되었다.

수백만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이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에 결속되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한 인민의 정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이 인민정권의 시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민주개혁수행과정에서 통일전선운동은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김일성은 통일전선운동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이 운동을 더욱 조직화하며 체계화하는 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1946년 7월 22일 평양에서는 북조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회의가 소집되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북조선 민전에는 3개의 정당(즉 노동당, 민주당, 천도교청우당)과 직업동맹, 농민동맹, 민주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을 비롯한 10여개의 사회단체가 망라되었다. 민전은 20개조 정강을 공동강령으로 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하였다. 민전의 의장은 정당책임자들의 윤번담당으로 하기로 하였다.

북조선 민전중앙위원회 결성에 이어 각 도, 시. 관에 각급 위원회들이 결성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각계각층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더욱 널리 조직동원하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더욱 긴밀한 협조와 통일적 행동을 보장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여 북조선의 민주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북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북조선의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의 견고한 연합체로서 인민정권을 협조하여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며, 통일적인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투쟁에 광범한 대중을 궐기시키며,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통일행동을 보장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운동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벌어졌다. 미군정이 국내반동세력을 규합하면서 애국적 민주역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방해하고 있는 조건에서 민주역량의 단합이 아주 절실한 문제로 나섰으며 미제와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민주주의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더욱 간절한 요구로 나섰다.

1946년 2월 15일 남조선의 40개 정당, 사회단체들로써 민주주의민족전선이 결성되었다.

민족전선은 민주주의정권의 수립, 경제건설과 부흥, 토지문제 해결, 8시간노동제, 민생문제 등의 요구들을 내걸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해방후 남조선에서도 인민대중의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진출이 세차게 일어나고 반동세력이 고립되어 있었던 형편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을 발전시킬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조선의 공산당(노동당)이 자기 역할을 옳게 수행하지 못했고 또한 다른 정당들 내에서도 동요성이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하여 통일전선운동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김일성은 남조선의 애국적 정당들의 활동에 언제나 큰 주목을 돌렸고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합심협력하는 대 대한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으며 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에 힘썼다. 그리하여 1940년 4월에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가 소집될 수 있었다.

4월남북연석회의 오늘에 다시 본다

조연택 / 구국전선 주체90, 4월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김구선생을 만나주시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사변인 4월남북연석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어느덧 53년의 세월이 흘렀다.

4월남북연석회의는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고 민족영구분열의 위기를 가시기 위해 사상과 정견, 신앙이 각이한 모든 애국적 정당, 단체들이 과거를 불문하고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고 힘을 합쳐 통일방략도 함께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크다 하겠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37(1948)년 3월 25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제26차 회의에서 미국과 그 주구 이승만일파의 민족분열책동으로 우리 민족 앞에 드리운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자주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남북 정당, 단체대표자들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발기하시었다.

주석님의 발기에 의해 소집된 이 회의에는 이북에서 북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당을 비롯한 3개 정당 12개단체와 이남에서 근로인민당, 신진당 등 41개 정당, 단체 등 남과 북의 56개 정당, 단체성원 1천여만을 대표하는 6백 95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1948년 4월 19일 평양모란봉극장에서 막을 올린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치하게 미국과 이승만일파의 망국적인 5.10단선을 규탄하고 그것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민족분열을 우려하는 각 당, 각파, 각계층 민중들을 하나의 거족적인 민족통일전선에 결집시킬 것을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충만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보고를 열렬히 지지찬동했으며 사상과 정견,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통일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진지하게 토의했다.

대표들은 한결같이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경모의 정을 표시하고 주석님의 현명한 영도에서 국난타개의 밝은 전도를 찾았다.

당시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한국독립당위원장 김구씨는≪조선은 참으로 훌륭한 주인을 만났소. **김일성**장군님께서 영도하셔야 조선은 행복하게 될 수 있소.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가겠소.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요≫라고 감격에 겨워 말했다.

또한 민족자주연맹주석 김규식씨는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군사지략과 정치를 겸비하신 걸출한 영웅이시오. 그분의 정치보고를 읽어도 그렇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그분은 참으로 식견이 넓으시고 분석력과 통찰력이 비범하신 분이시오≫ 라고 하며 주석님을 민족의 구세주로 높이 칭송했다.

회의후 이남에 돌아온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연석회의 참가자들과 민족주의인사들은 공개기자회견, 공개성명 등을 통해 주석님의 출중함과 이북의 민주건설성과를 적극 홍보했으며 연석회의에서 토의하고 결의한대로 ≪단선단정≫을 반대하고 통일적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과감한 반미구국통일운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그해 7월 21일 서울에서 한국독립당, 민족자주연맹을 비롯한 80여개의 정당, 단체대표들을 망라해 민족통일전선을 지향하는≪통일촉진협의회≫를 무었으며 미군철수와≪북진통일≫반대의 구호밑에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다.

참으로 역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는 민족이 있고서야 정당도, 주의주장도 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남과 북의 모든 애국적 정당, 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사상과 정견,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털어 놓고 나라의 통일방책을 토론한 민족단합의 대회합이였다.

남북연석회의를 계기로 그때까지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와의 대연합이 실현되게 되었다.

이것은 사상과 이념, 신앙과 재산의 차이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며 과거 민족 앞에 불미스러운 죄를 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애국의 길에 들어선다면 불문에 붙이고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을 명시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폭넓은 민족단합방침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4월남북연석회의가 있은지 53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 앞에는 미국과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물리치고 기어이 조국통일을 성취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

시대와 역사 앞에 나선 이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자면 온 겨레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헌장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통일애국의 길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특히 오늘 우리 앞에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마련된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성스러운 과제가 나서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각당, 각파, 각계 애국민중은 분열은 매국이고 통일은 애국이라는 대의밑에 애국애족의 일념안고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단합해야 하며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각계층 애국민중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일구월심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그분께서 가리키시는 통일애국의 길로 힘차게 매진해야 할 것이다.

통일전선탑과 함께 빛나는 이름들

채수항 / 구국전선 주체 90, 4월 21일

자주민족의 시조이시고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에 의해 민족대단결사상이 창시되고 민족적 단합의 참다운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세기적 변혁의 언덕을 넘으면서 여러 번 세대가 바뀌였지만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성스런 위업에 몸바친 사람들의 이름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 있다. 인생의 출발점과 걸어온 길은 서로 달라도 민족자주위업에 바쳐진 넋을 값높이 여기고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는 위대한 품이 있기 때문이다.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반공의 편견에서 벗어나 연공애국, 통일애국에의 인생전환으로 민족사에 애국의 흔적을 남긴 지사들의 이름이 세대와 세대, 세기와 세기로 이어지며 빛나는 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한없이 넓은 포용력, 고결한 의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주석님과 장군님께서 민족대단결을 기리는 통일전선탑에 반공으로부터 연공애국의 길로 인생전환을 한 통일애국열사들의 이름도 새겨넣으시어 민족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도록 해주신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일전선탑은 평양의 만경대 맞은편 대동강 한가운데에 떠있는 두루섬과 나란히 있는 쑥섬에 건립되였다.

쑥섬은 주체37(1948)년 5월2일 경애하는 주석님의 지도밑에 4월남북연석회에 참석했던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회를 가졌던 유서깊은 사적지이다.

쑥섬에 통일전선탑을 건립할 구상과 발기를 하신 것은 **김일성**주석님이시었다. 영명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통일전선탑을 시대의 기념비로 훌륭하게 건립하시었다.

통일전선탑에 대한 몇가지 자료

- 1990년 8월10일 조국광복 45돌을 맞으며 제막함
-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남북의 정당, 단체들의 수를 상징하여 56개의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쌓은 높이 13.5m의 석탑임
- 탑은 기단과 비문판, 탑신으로 이루어져 있음
- 탑신 앞면에는 주석님께서 친히 쓰신 ≪통일전선탑≫이라는 다섯글자가 금빛으로 부각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정당, 단체들의 명칭이 새겨져 있음
- 비문판의 앞면에는 4월남북연석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신 경애하는 주석님의 교시와 존함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쑥섬협의회에 참석했던 대표들의 이름과 직무가 새겨져 있음

여러 경로를 거쳐 방북의 길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는 통일전선탑을 참관한 사람들이 많다. 해외교포들도 평양에 가면 으레 쑥섬사적지를 찾고 통일전선탑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춘다고 한다.

그때마다 특별히 그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김구, 김규식, 홍명희, 백남운, 이극로, 조소앙, 조완구, 엄항섭, 최동오, 정진석을 비롯한 이남출신의 통일애국인사들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통일전선탑은 민족의 대단결로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주석님과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의해 솟아난 역사의 기념비이고 주석님과 장군님께서 통일성업에 공헌한 애국적 인사들에 대한 의리가 얼마나 깊으신가를 감명깊게 보여주는 증언자라 하겠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현대조선역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신민당 당수를 지낸 허헌선생

1948~1949년에 이르러 남북의 혁명역량을 결속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요구되었다.

우선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을 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이승만정권의 반동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었다.

다른 한편 적의 반동공세로부터 혁명역량을 보존하는 데 대한 **김일성**의 거듭되는 교시를 고의적으로 어긴 박헌영일파의 해독행위에 의하여 범죄적인 모험주의와 투항주의가 엉켜 작용한 결과 남조선의 노동당조직들과 혁명역량이 계속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남조선노동당은 전면적인 파괴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남조선노동당을 북조선노동당에 합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의 지도밑에 1949년 6월 30일 평양에서는 남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연합전원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남북조선노동당을 통일된 하나의 당으로 합당하는 데 대한 중요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남북조선 노동당을 합당하고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며 영도자인 **김일성**을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으며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유일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남북조선의 민전들을 통합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남북조선의 두 민전 산하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고 그 정당, 사회단체들이 다같이 이 정권에 참가하게 된 조건에서 두 민전이 따로 존재해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두개 민전을 하나로 통합하고 더욱 확대함으로써 남북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역량을 더욱 굳게 단합시킬 수 있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1949년 5월 중순부터 진행된 남북조선의 민전들 사이의 접촉에 기초하여 5월 25일에는 두 민전을 합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49년 6월 26일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정식으로 결성되었으며 여기에는 남조선민전에 들어있지 않던 24개의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새로 가입하여 북과 남의 7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되게 되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에서는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선언서가 채택되었다.

선언서는 먼저 조선인민 자신이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이 즉시 철거하며 비법적인 ≪유엔조선위원단≫을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1949년 9월에 전조선적으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선거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그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며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등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애국적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시킬 것을 강경히 주장하였다.

선언서는 남북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서 협의회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하며 총선거를 통하여 수립되는 최고입법기관은 헌법을 채택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하는 데 대한 구국대책을 제외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선언서에는 동족상쟁과 외국의 간섭이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방책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선인민의 이익과 우리 조국의 민족적 독립을 귀중히 여기는 인사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의 선언서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조국전선결성대회 선언서에서 제의된 평화통일방책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접수될 수 있는 공명정대한 것이었다. 과연 선언서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열광적인 지지찬동을 받았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조국전선의 결성과 그 선언서를 지지하여 군중집회를 열고 그것을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남반부인민들은 여러 출판물들에 자기들의 투쟁결의를 표명함과 함께 미제와 이승만정권을 반대하는 실천투쟁으로써 이에 호응하였다. 1949년 7월 20일 남반부노동자들은 평화적 통일방안을 지지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1949년 6월 29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은 선언서 1, 000여통을 남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 출판기관들, 교육문화기관들과 산업경제 및 상업 기관들, 각종 종교단체들과 보건, 체육 및 기타 기관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국회≫및 그 ≪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였으며 동시에 남조선강점 미군당국과 ≪유엔조선위원단≫에게도 발송하였다. 7월 2일에는 유엔사무총장(트루그베 리)에게 발송하여 유엔성원국 정부들에 전달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추종자들, 한줌도 못 되는 국내반동들은 이 정당한 제의를 반대함으로써 그들이 조선인민과 평화적 통일의 원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자체폭로하였다.

미제의 사촉(부추김에)밑에 이승만정권은 평화통일방안을 반대하면서 ≪북진통일≫을 고창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침략전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조국통일과 민족통일전선

정명학 / 구국전선 주체90, 7월 21일

조국통일은 7천만 우리 겨레의 반세기여에 걸치는 비원이며 역사의 부름이다.

조국통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위업이며 당국이나 몇몇 특정한 계급, 계층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전민족적 위업이다. 조국통일은 그 자주적 본성과 거족적 성격으로부터 남과 북, 해외를 포괄하는 전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합칠 것을 요구한다.

통일위업수행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이라면 그것은 전민족의 단합된 힘과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담보된다. 자주와 단결이야말로 통일의 생명선이고 통일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조국통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역사의 대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신 역사적 공적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주석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5년전인 주체35(1946)년 7월22일 평양에서 북조선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대표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역사적인 보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결성할데 대하여≫를 진술하셨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보고에서 당시 조성된 복잡한 정세와 8.15후 이북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하신데 기초하여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시었다.

> **≪오늘 조선이 나아갈 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반민족적, 반인민적, 반민주주의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완전히 독립하는 길, 새로운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길입니다.(중략) 우리는 이 올바른 길을 따라 우리 민족의 역사적 숙망을 실현하여야 하며 조선의 완전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적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튼튼한 통일단결과 그들사이의 더욱 긴밀한 협조입니다.≫**

이 교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석님께서는 광복된 조국땅위에 통일적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시기 위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약칭 민전)의 결성을 발기하셨던 것이다.

민전은 이북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단체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체의 상설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그후 4월남북연석회의를 통해 남북의 제정당, 단체들사이의 연합을 실현하시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과정을 통해 남북의 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셨으며 그에 기초하여 민전을 남과 북의 진보적 정당, 단체들과 애국적 민중을 총망라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약칭 조국전선)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조국전선의 결성은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었고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주석님의 현명한 영도의 알찬 결실이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일찍이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자주독립의 열쇠를 민족단심에서 찾으시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천명하셨다. 그것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이 주체사상을 민족문제에 구현하여 내놓으신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이고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임을 말해 준다.

조국전선의 결성이 갖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는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한 전국적 규모의 통일전선조직이 출범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모든 애국적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민중사이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흐름에 합류시키는 사업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힘있게 벌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데 있다.

조국전선은 결성된 후 지난 55년동안 끊임없이 변화되는 정세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강화하며 온 겨레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북에서 지난날 두 단계의 사회적 변혁과 두 차례의 복구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한데는 바로 주석님의 건국노선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이북민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헌신분투한 조국전선의 노력도 깃들어 있는 것이다. 조국전선은 특히 남과 북, 해외를 포괄하는 온 겨레를 내외분단세력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참으로 주석님에 의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조국전선의 결성과 그가 걸어온 55년의 영광찬 노정은 통일전선은 민족의 단결이고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임을 웅변으로 실증하고 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들과 각계 민중은 조국전선결성 55돌을 맞으며 통일의 숙원을 이루는 길도, 민족만대의 부강번영을 이룩하는 길도 통일전선에 있다는 역사적 진리와 교훈을 깊이 새기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단합과 통일의지를 보여준 통일대회

구국의 소리 주체90, 5월 7일~8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다시피 지난 1일 금강산에서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남북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5.1절 통일대회를 성대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그럼 먼저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정원 : 그러죠. 외세에 의해 국토가 분단된 이래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 통일대회가 진행됐어요. 대회에는 남측에서 권원표상임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노총대표단, 여성위원회 정인숙위원장을 단장대행으로 하는 민주노총대표단을 비롯해서 모두 40명이 참가했어요. 그리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대표들이 또한 대회에 초대됐습니다. 북측에서는 리진수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을 비롯해서 600명이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1, 000여명의 남북노동자들이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되죠.

대회에서는 남과 북, 해외의 여러 단체들에서 대회 앞으로 보내어 온 축전들과 성명들이 소개되었고 한국노총 권원표상임부위원장과 정인숙여성위원회 위원장, 리진수 조선직업총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축하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인천본부 염성태본부장, 조선운수 및 수산직업 동맹 중앙위원회 전남준위원장, 한국노총전북화학노조연맹 박헌수위원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에서 그들은 일치하게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남북노동자들이 하나로 굳게 단결해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며 연대와 단합을 강화해서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사회자 : 네, 그리고 대회에서는 다채로운 체육, 문화행사들도 진행됐다고 하던데요.

윤정원 : 그랬죠. 대회장에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지향해 통일운동에 한몸 바쳐가고 있는 남측대표들을 위한 북측의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이어 겨레의 따뜻한 정이 흐르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들을 ***주는 가운데 남북노동자들의 각종 체육, 오락경기가 성황을 이루며 즐겁게 진행됐어요. 대회장에서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민족의 기개를 떨칠 의지를 안고 남북혼합팀을 구성해 각 팀별로 남과 북이 하나로 뭉쳐 마음속 분단의 벽을 허물며 남북노동자 통일축



구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통일축구경기에 이어 남북노동자들의 연환공연이 대회장을 뜨거운 민족애와 통일열기로 끓어 번지게 하면서 통일열기를 더욱 높이며 진행이 됐죠.

사회자 : 이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는 우리 민족, 우리 겨레의 마음은 하나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노동자들의 통일열기가 더욱 뜨거웠고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는 참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는 외세에 의해 민족이 반세기 이상이나 분열되면서 남북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최대규모의 행사로써 남북노동자들의 마음은 하나고, 그들의 드높은 통일열망과 단결의 의지를 백분 내외에 힘있게 과시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봐지죠. 이번 대회의 전 과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국통일에 대한 남북노동자들의 지향과 염원은 강렬하다는 걸 다시금 보여주었어요.

이번 대회에 민주노총대표로 참가했던 김모씨는 대회의 전 과정을 보고 이렇게 지적했어요. ≪민족분단사에 처음으로 되는 남북노동자들의 대화합이었다. 1, 000여명의 마음을 합쳐 *** 보이면서 통일을 열망하는 남북노동자들의 통일열기는 참으로 뜨거웠다. 다시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위력을 볼 수 있었다.≫ 이런 하나의 사실에서도 이번 대회에서 남북노동자들이 과시한 단결된 힘, 통일열망을 그 어떤 총칼이나 군대로써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똑똑히 알 수가 있죠.

사회자 : 이번 대회과정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북노동자통일대회야말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통일대행진의 앞장에서 나가려는 남북노동자들의 억센 의지와 희망을 보여준 대회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대회에서 진행된 축하연설과 축하공연, 각종 오락경기와 남북노동자 통일 축구경기, 연환공연 등을 통해 일치하게 남북노동자들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민족의 숙원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나가는데서 언제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한국*** 이모씨는 이번 대회과정을 보고 남북노동자들의 하나하나의 행동은 한국노동운동의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보여주었고, 모든 것을 통일대행진에 바쳐 나가려는 굳센 신념과 의지를 잘 알 수 있고, 남북노동자들이 앞장서면 통일은 문제없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하면서 자신도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통일운동에 앞장설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이건 이모씨의 결의만이 아닌 우리 1, 000만 노동자들의 결의라고 생각해요.

사회자 : 네, 이번 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대표로 초대된 최모씨는 남북노동들만이 아니라 남북농민들도 다같이 연대연합하고 힘을 합쳐 통일성전에 앞장서 나선다면 그 어떤 외세도 ***수 없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절감했다고 힘주어 말했잖아요. 이건 통일운동에서 노농 동맹이 갖는 의미와 그 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이번 남북노동자들의 만남과 대회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단결력도 내외에 크게 과시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옳은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이번 대회는 남북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남북의 각계각층이 서로 만나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면 그처럼 바라는 조국통일을 얼마든지 앞당겨 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 농민 대중들은 민족의 숙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는데서 한국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금강산에서 민족통일대토론회 진행

구국의 소리 주체90, 6월 17일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사회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15일, 민족통일대토론회가 금강산에서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을 비롯한 이북의 각 정당, 단체대표 2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남측에서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한총련 등을 비롯해 여러 정당, 단체대표 2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범민련 미국지역본부대표 등 20명의 해외동포대표들이 참가했고 각계 인사 250여명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는데 연사들은 일치하게 지난해 발표된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며 조국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애국애족의 기치이고 민족자주의 통일강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사들은 남과 북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해도 민족적 공통성보다 더 클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가장 힘있는 방도는 민족대단결이며 그것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의 공동보도문과 일본당국의 역사왜곡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얼마전에 평양에서 있은 이북의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한 공동통일행사로서 남과 북, 해외의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한데 대해 남과 해외의 많은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이 이 애국적인 행사에 열렬히 호응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한돌을 맞이한 뜻깊은 때에 민족분열이래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의 많은 정당, 단체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6.15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 라는 주제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진행한 것은 우리 나라 통일운동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과 국제사회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민족통일대토론회는 6.15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존엄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자주의 기치이고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새 세기 조국의 미래를 약속해주는 희망의 이정표이라는 걸 다시금 내외에 과시했습니다.

또한 민족통일대토론회는 21세기 첫해에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의 광범위한 정당, 단체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해 단합의지와 통일의 뜻을 합친 거족적인 대회합으로써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겨레의 통일**을 힘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석했던 남북의 각 정당, 단체들과 각급인사들은 토론회의 정신에 따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이 되는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데 몸과 마음을 다바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면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파기해야 하며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시켜야합니다.

남북의 각당, 단체들과 각계층민중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 투쟁해 나간다면 분단의 비극사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산에서 남북농민통일대회 진행

구국의 소리 주체90, 7월 20일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우리 나라 제일의 명산인 금강산에서는 남북농민대표들과 관계부문간부들, 그리고 남측의 민화협과 통일연대, 7대종단, 민주노동조합총연맹,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청년, 학생추진위원회 대표들이 초대된 가운데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가 대성황리에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18일 개막식에 이어 6.15공동선언지지관철을 위한 통일연단이 진행되었으며 남북연예인들의 축하공연, 민속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남북이 어우러진 뜨거운 통일열기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남북대표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 정을 나누며 구룡연 등반을 하고 서로 헤어져야하는 아쉬움속에 남북농민통일대회폐막식을 가졌습니다. 폐막식에서는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의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회전과정이 보여줬듯이 이번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는 온 민족의 통일의지와 통일열망을 그대로 보여준 매우 뜻깊은 통일회합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의 모든 대표들이 통일연단을 통해 한결같이 외세를 배격하고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6.15공동선언이행만이 조국통일의 최선의 방도임을 확정한 것으로써 6.15공동선언의 정당성을 다시금 내외에 과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뿐아니라 남북연예인들의 축하공연과 남북대표들이 어우러져 서로 위해주고 정을 나누며 뜨거운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민속체육 및 유희오락경기와 구룡연등반과정 등은 남북이 풍속과 정서, 감정, 생각도 같은 한민족으로서 만나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확증해주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농민통일대회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반드시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여준 역사적 계기였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대회는 분단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남북농민들의 통일대회합으로써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입니다.

통일연단의 토론들과 대회공동보도문에서도 밝혔지만 6.15공동선언이행을 통한 자주통일시행결의를 다지고 남북농민들의 통일연대조직을 내오기로 한 것은 농민들도 노동자들과 함께 조국통일의 당당한 주력군임을 내외에 선포한 역사적 쾌거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5.1절 노동자들의 통일대회와 6.15공동선언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그리고 이번에 남북농민통일대회 등 모든 것들이 6.15공동선언에 의해 마련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이야말로 남북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가장 올바른 통일이정표임을 그대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6.15공동선언이행만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 민족공동의 최상의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이행을 위한 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

조선중앙통신 주체90, 8월 16일





21세기를 맞이하여 7천만 겨레의 드높은 통일열망으로 3천리 조국강토가 끓어 번지고 있는 가운데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이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

새 세기의 첫해 광복절을 맞으며 거행되는 통일대축전은 자주의 기치밑에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 고귀한 전통을 이어 민족주체적힘으로 가까운 앞날에 강성부흥하는 통일조선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온 민족의 드팀 없는 통일의지와 굴함 없는 통일노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력사적인 통일대회합이다.

이번 통일대축전은 특히 조국통일위업이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빛내이는 불멸의 대기념비로 웅장화려하게 새로 건립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각계 인사들의 참가밑에 개최되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이목을 끌고 있다.

각계 단체,대표들사이의 모임과 상봉,통일연단,전시회,예술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는 축전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분렬주의세력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운동을 가일층 확대발전시키며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더욱 굳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이 15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개막식장은 이번 축전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기치,애국애족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억센 기상을 떨치는 통일대축전으로 빛내이며 통일조국을 하루빨리 안아 오려는 각계 대표들의 드높은 통일열의로 끝없이 설레이고 있었다.

개막식장상공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이룩하자≫,≪조선은 하나다≫,≪민족자주≫,≪민족대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 있었다.

개막식장에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철저히 실현하자≫,≪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자≫,≪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남,해외의 3자련대를 강화하자≫,≪전 민족적인 애국애족운동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강성대국을 일떠세우자≫ 등의 구호판들과 조국통일주제의 대형선전화들이 세워 져 있었으며 통일기들과 단체기발들이 나붓기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용순동지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대부위원장,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당,정권기관,사회단체 책임일군들,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는 2001년민족통일대축전 각계 대표들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2001년민족통일대축전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리랑≫노래선률이 흐르는 가운데 녀성근로자들이 흰색 바탕에 조선지도가 그려 진 대형의 통일기발을 들고 입장하였다.

≪통일아 통일아≫ 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통일기발이 서서히 게양되였다.

순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만세≫,≪통일된 조선민족 만세≫의 구호소리가 터져 오르고 수천개의 고무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 올랐다.

2001년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대부위원장이 축하연설



을 하였다.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박재로부의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자주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가 뚜렷이 밝혀 져 있고 통일조국의 휘황한 설계도가 담겨 져 있는 민족의 통일대강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로 묶어 세울수 있는 가장 숭고한 리념은 민족자주라고 하면서 오늘의 대축전장에서 해외동포들이 조국동포들과 한데 어울린 감격적인 장면은 자주로 빛날 통일조국의 축도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해외동포들 모두가 한몸을 깡그리 바쳐 조국의 통일과 륭성번영의 길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며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분렬주의책동을 과감히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마중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부위원장은 이번 축전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과시하고 겨레의 통일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 주는 통일대회합이라고 지적하고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오늘의 성과를 귀중히 여기고 공고히 하며 보다 큰 성과를 위하여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자주통일의 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는 민족대단결에 있다고 가르쳐 주신데 대하여 강조하고 모든 조선민족이 민족자주정신,민족애를 리념적기초로 하여 하나로 굳게 뭉치며 통일을 위하여 련대련합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개막식에서는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을 축하하여 여러 정당,단체,각계 인사들이 많은 축전을 보내여 온데 대하여 통보되였다.

이어 축전대표들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주변에 기념식수를 하였다.

개막식에서는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을 경축하는 평양시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반갑습니다≫노래선률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민족의상을 한 예술인들이 화려한 춤바다를 펼쳐 놓았으며 축전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었다.

출연자들은 민족적정서와 통일념원이 담긴 무용 ≪양산도≫, 무용 ≪박편무≫,녀성4중창 ≪통일아리랑≫,녀성독창 ≪통일의 한길로 손잡고 가자≫ 등의 공연종목을 통하여 피줄도 언어도 하나인 우리 민족의 끊어 진 혈맥을 하루빨리 잇고 자자손손 복락하는 통일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을 격조높이 구가하여 개막식장을 통일열기로 끓어 번지게 하였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바라보며

구국의 소리 주체90, 9월 19일~21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투쟁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마음이 끝없이 가닿는 곳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자리잡은 평양입니다. 그 탑을 바라보며 신념과 의지를 다지고 그 탑을 우러르며 통일조국실현에 매진하는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그 심정, 건국대 김모씨의 글을 통해 새겨보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바라보며≫ 임현아씨입니다.

지구상에는 인류의 정신문화적재보인 탑들이 수많이 서있다. 오랜 역사를 혹은 남다른 형식을 자랑하는 그 많은 탑들에도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솟아 무엇을 상징하는 탑이고 모두가 과거를 회상케 한다는 그것이다. 탑의 중심에 솟아있는 **탑을 생각하면 백수십년전 저들의 공업발달을 요란스레 광고하며 근로대중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이 강철탑건설에로 내몰던 ***부르조아지들의 교활성과 탐욕성이 안겨온다.

피사탑을 그려보면 600여년간이나 기울어진채로 서있다. 특히 저명학자 갈릴레오가 자유낙하법칙을 증명한 곳이라고 한 이 종탑의 일화가 다시금 떠오른다. 내가 태어난 전라북도 익산군 ***에 있는 미륵사의 석탑에 지금도 역력히 남아있는 동방에서 제일가는 돌탑을 세운 당대 사람들의 ****. 과거를 새겨보게 하는 탑은 지구촌에 많다. 그러나 광막한 저 하늘아래 인간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새겨주는 탑은 없었으니 그것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올바른 사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세기 인류는 ***위대한 사상을 반영하여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기념탑들을 이북에서 볼수 있었다. 주체사상탑을 비롯하여 창공을 치받들며 솟아올라 사람들에게 흘러간 과거만이 아닌 다가올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슴가득 채워주는 시대의 기념탑들이 얼마나 많은가.

새 세기 첫 광복절을 맞으며 평양의 관문인 통일거리입구에 특색있게 건립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도 그러한 탑들중의 하나이다. 그 탑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나는 통일조국을 안으며 힘차게 터쳐오를 축포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고 하나의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갈 칠천만겨레의 행복한 앞날이 금시라도 펼쳐질 듯 싶다. 그것은 무엇때문일까. 한없이 높고 맑은 하늘아래 높이 솟은 기념탑의 그 웅장화려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러오는 충동이 크기 때문일까. 그것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가장 위대한 사상을 전하는 신통한 탑이기 때문이다.

새겨보면 분단의 연륜이 끝없이 깊어지는 속에 얼마나 많은 통일주장들이 울려나왔던가.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로는 장구한 세월 얼어붙은 통일의 문을 한치도 열수 없었다. 분열주의세력은 북진통일론, 승공통일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론과 같은 반북대결의 **을 뿜으며 통일의 문이 열릴 종이 울릴때마다 더 악랄하게 분열의 빗장을 치곤했다.

통일의 문은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 이 시대적물음에 언제나 명쾌한 해답을 주시며 겨레의 통일운동을 앞장에서 개척하여 오신 분은 **김일성**주석님이셨다.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통일국가의 방향과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주석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애국애족의 결정체인 조국통일3대헌장의 찬란한 빛발로 겨레의 앞길을 밝혀 우리 민중은 분열주의 광풍이 그처럼 기승을 부리는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뚜렷한 목표와 향방, 자신감과 용기를 안고 조국통일에 정력을 매진하여 올 수 있은 것이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와 같은 경이적인 화폭도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3대헌장의 봉화로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고 민족의 통일운동을 진두지휘해오신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펼쳐질수 있었다.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위업의 강령적지침인 이 위대한 조국통일사상이 담겨져 있어 3대헌장기념탑은 **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자신감과 낙관을 신념과 의지로 한 기둥마냥 심어준 것 아닌가.

보라.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명제들의 주옥같은 글발들, 조국애 민족애로 일관된 기념탑의 부조된 군상들, 주석님의 위대한 통일의지가 얼마나 뜨겁게 어려 있는가. 그뿐인가. 두팔을 힘차게 내뻗쳐 조국통일3대헌장마크를 안아올리는 두 여인의 형상이 **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시려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얼마나 역력히 새겨져 있는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보려는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의 과거사를 잇고 3대헌장을 철저히 관철하는 그 길에 통일강성대국을 안아 올 것이다.

바로 그래서였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물론 범민련남측본부를 비롯하여 이땅의 수많은 통일애국단체들과 해외동포들이 3대헌장을 받들어 자기들의 심장으로 기념탑을 억척같이 떠받들 ********바로 그래서였다.

지난 8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이 분열주의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열린 통일행사들에 참가하여 민족의 통일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한 것이다. 지금 분열주의세력은 이것을 문제시하며 방북단을 상대로 탄압의 칼날을 더욱 악랄하게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용용히 굽이치는 대하의 흐름을 칼로 멈춰세워보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빛을 뿌려 민족의 앞날은 밝고 겨레의 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힘찬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날로 굳건해 지는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의 통일의지이다.

앞으로 민심의 물결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서있는 평양으로 더욱 끝없이 물결쳐 흐를 것이다. 앞으로 그 기념탑에서는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더 많은 통일행사들이 열릴 것이다. 통일을 알리는 축포들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울리고 통일의 만세소리도 그 기념탑에서 울려나와 온 삼천리에 펴져갈 것이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빛나는 하늘아래서 우리 겨레는 분열주의세력들을 척결하고 통일강성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드날리고 세세년년 복락할 것이다.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 가지 논제(발췌)

대표집필자 최성원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지금 조선반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역량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그 혁명의 주체는 지위가 서로 다른 것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 그 역할분담에 의하여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주도역량은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이며, 방조역량은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전국적 범위의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입니다.

반제혁명역량이란 노동계급의 수령을 중심으로 강철같이 단결한 영도핵심역량을 의미하며, 자주적 민주역량은 통일전선으로 연대・결집한 자주애국적이며 민주개혁적인 역량을 의미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의 견지에서 역량편성문제를 살펴보면, 주도역량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의 기치에 따라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조국통일역량이며, 방조역량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에 따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통일전선의 통일애국역량입니다.

먼저 반제혁명역량에 대하여 논하겠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이라는 개념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군사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제외하고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에 대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혁명무력을 제외하고 혁명역량을 논하는 것 자체가 공허한 담론에 불과합니다.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말은, 조선노동당이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앞세우고 혁명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혁명무력을 앞세우고 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선군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선군혁명으로 됩니다. 조선노동당은 선군혁명사상을 기치로 들고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앞세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제혁명역량을 조선노동당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전위조직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신식민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위조직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제혁명역량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반제혁명역량이라는 점에서, 조선노동당의 혁명역량과 전위조직의 혁명역량은 그 성격과 임무가 하나로 일치합니다. 전위조직과 조선노동당은 모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최고영도자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고 혁명전략을 수행하는 혁명적 정치조직입니다. 전위조직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된 혁명조직입니다. 당적 체계를 갖춘 전위조직을 전위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전위당도 역시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된 혁명적 당으로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기서 전위조직 건설의 과업,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관계, 전위조직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관계, 전위조직과 지역통일전선의 관계, 그리고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이 수행하는 임무등에 관련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필자는 이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선군혁명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미제에 대한 전략적 공세를 취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혁명무력을 동원하지 못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 즉 전국적 통일전선은 미제에 대한 전술적 공세를 취하는 방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공세라는 개념은 무력에 의거한 정치적 압박공세와 정치투쟁에 의거한 압박공세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정치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세라는 정치적 개념은 무력공격이라는 군사적 개념과 구별됩니다. 조선인민군이 미제에 대하여 혁명무력의 전략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공세(혁명무력에 의거한 정치적 압박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해야 정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지금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은 미제의 정치・군사적 전략거점들에 대해 전략적 공세를 취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적 통일전선으로 연대・집결하고 있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미제의 신식민체제에 대한 전술적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바라보면, 역할분담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미제의 정치・군사적 전략거점이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에 전진배치한 군사적 침략거점들은 물론이고 미제의 영토 안에 있는 정치・군사적 전략거점들을 의미합니다.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붕괴시키려면 신식민체제부터 타격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미제의 정치・군사적 전략거점부터 전략적 공세로 집중타격해야 한다는 것이 선군혁명의 전략적 방침입니다. 이 탁월한 혁명전략으로 하여 조선민족의 위대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지금 승리의 빛나는 길로 일보일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연대・집결한 전국적 통일전선이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격하는 전략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혁명의 준비기를 경과하여 마침내 혁명적 공세기가 도래해야 가능합니다. 이 혁명적 공세기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방조역량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폐절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동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노농동맹의 혁명역량이 계급해방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면,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도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주축이 된 노농동맹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연대・집결시킨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은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에 의하여 형성되는

통일전선은 당과 수령의 영도에 따라서 전국적 범위의 노농동맹을 주축으로 하여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포괄하는, 심지어 애국적인 민족자본가까지도 포괄하는 매우 광대한 전선입니다. 우리 나라 영토의 일부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그 지역에 신식민체제를 조작해놓고, 혁명기지까지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 포악한 미제를 격퇴하고 민족해방을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하려면, 지역이나 계급계층의 범위에 한정된 협애한 역량을 조직 · 동원해서는 어림도 없으며, 전국적 범위로 확대 · 포괄된 매우 광대한 역량을 조직 ·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일전선입니다. 이 통일전선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전선입니다.

통일전선은 당과 수령의 영도에 따라서 전국적 범위의 노농동맹을 주축으로 하여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포괄하는, 심지어 애국적인 민족자본가까지도 포괄하는 매우 광대한 전선입니다. 우리 나라 영토의 일부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그 지역에 신식민체제를 조작해놓고, 혁명기지까지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 포악한 미제를 격퇴하고 민족해방을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하려면, 지역이나 계급계층의 범위에 한정된 협애한 역량을 조직·동원해서는 어림도 없으며, 전국적 범위로 확대·포괄된 매우 광대한 역량을 조직·동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광대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은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을 방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방조역량으로 됩니다. 통일전선역량은 방조역량입니다.

통일전선은 자연발생적, 산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의거하여 형성되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영도함으로써 형성됩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따라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는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며, 그 전선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길로 영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인 조선노동당은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영도하는 최고의 영도조직으로 됩니다. 다른 한편, 전위조직은 신식민지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총집결하는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영도하는 지역통일전선의 영도조직입니다.

그러면 전국적 범위의 광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해 가는 투쟁과정에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겠습니까?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지역통일전선으로 묶어 세우는 조직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식민지의 인민대중과 혁명기지의 인민대중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하는 인전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역량은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 그리고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하나의 거대한 역량으로 결집된 총적이고 통일적인 역량입니다.

4.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다음으로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논하겠습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조선민족 자신입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논할 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이른바 ≪남북관계론≫이라는 낙후한 관점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론의 관점은 조선민족을 남북관계라는 현상적 측면에서 조망하는 관점입니다. 그것은 조선민족이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상을 중시하면서, 모든 문제를 남북관계라는 현상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이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제는 우리 조선민족을 두 지역으로 분리시키고 민족 자체의 분열을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 조선민족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반세기를 살았다고 해서 민족이라는 사회적 집단 자체가 둘로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조선민족은 미제와 민족반역자들의 민족분열책동을 짓부시면서 의연히 하나의 언어, 하나의 혈통에 의하여 통일된 생명체로 살아있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그 어떤 힘으로도 분열시킬 수 없는 영생불멸의 생명체이며, 무궁번영의 길로 끝없이 전진하는 주체입니다. 이것이 조선민족의 영원한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논함에 있어서 현상을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남북관계론의 낙후한 관점은 극복되어야 하며, 오로지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본질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논함에 있어서 남북관계론의 관점을 배제하면, 그 주체의 역량은 북측의 역량과 남측의 역량으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의 역량은 하나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주체가 두 개의 역량으로 편성되어,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동일하게,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도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위의 상이성과 역량의 차이를 지니게 됩니다. 그에 따라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주도적 역할과 방조적 역할을 분담하는 역량으로 편성됩니다.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체역량은 주도역량으로, 방조적 역할을 하는 주체역량은 방조역량으로 됩니다.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른 역량편성은 기존의 통일전선론에서 지적했던 주력군과 보조역량이라는 구분법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도역량이나 방조역량이 모두 조국통일의 주체역량, 또는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의 역량으로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도역량만 주체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방조역량은 비주체적 역량이라고 폄하하려는 논리는, 지위의 상이성과 역량의 차이를 무시하고 역할분담에 따른 역량편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조국통일운동의 주도적 역할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 역할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기치로 든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이 담당합니다. 물론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이 6.15 공동선언을 외면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조국통일 3대 헌장과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들고 투쟁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은 **김일성** 주석님께서 창제하시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헌장으로 종합하여 제시하신 것이고, 그 3대 헌장에는 6.15 공동선언의 내용이 모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이 조국통일 3대 헌장과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들고 투쟁한다는 표현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기치로 들고 투쟁한다고 표현하면 족할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논함에 있어서 현상을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남북관계론의 낙후한 관점은 극복되어야 하며, 오로지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본질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논함에 있어서 남북관계론의 관점을 배제하면, 그 주체의 역량은 북측의 역량과 남측의 역량으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의 역량은 하나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주체가 두 개의 역량으로 편성되어,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니다.

그렇다면 조국통일운동의 방조적 역할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 역할은 우리 나라 전영토에서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들고 투쟁하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담당합니다.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불문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하고 있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은 통일애국역량을 가진 인민대중입니다. 바로 이 광대한 통일애국역량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에서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전국적 통일전선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따라서 당의 영도로 형성되고 영도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서,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전국적 통일전선도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따라서 당의 영도로 형성되고 영도됩니다.

6.15 공동선언은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을 집대성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실현하는 실천적 방침을 담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 자체가 **김정일** 총비서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을 천명하고 있는 민족대단결 5대 방침에 의하여 세상에 나올 수 있었으므로, 그 선언의 기치 아래 형성되고 있는 전국적 통일전선이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따라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불문가지입니다.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는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조선노동당입니다.

지금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불문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형성되고 있는 통일전선은, 아직은 견고하게 축성되지 못하였으나,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따라서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이 총집결하는 광대한 통일전선으로 자기의 장엄한 모습을 차츰 완성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 범위에서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을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시킨 지역통일전선을 축성하는 조직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과 혁명기지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하는 인전대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사업의 최종 목적은 전국적 통일전선을 광대・견고하게 축성하는 것입니다.

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필자가 이 논문에서 논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로,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전국적 범위에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하여 광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국적 통일전선은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을 실현하는 전선이라는 것, 그리고 전국적 통일전선의 영도조직은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국적 범위에서 노동계급과 농민이 연대함으로써 장차 완성될 노농동맹역량을 주축으로 하여 애국적 민족자본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하여 광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국적 통일전선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을 실현하는 전선이라는 것, 그리고 전국적 통일전선의 영도조직은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통일애국역량의 통일전선과 자주적 민주역량의 통일전선은 하나의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주체가 하나이므로 지금은 비록 전국적 통일전선이 두 개로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일체화될 것입니다.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의거한 당의 영도에 따라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전국적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의거한 당의 영도에 따라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전국적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이 두 개의 전선은 결국 하나의 전선으로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유일적인 통일전선이 조국통일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양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양대 위업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조국통일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양대 임무는 미제가 우리 나라 영토의 일부를 무력으로 강점함으로써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로 분할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신식민지의 지역적 범위에서 그 양대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통일전선이 잠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식민지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연대・집결시키는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조직・정치사업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에 의해 주동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운동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이라는 개념은 신식민지에 존재하는 지역통일전선으로 협소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영토에 존재하는 광대한 통일전선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신식민지에서의 지역통일전선은 지금 형성기를 경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식민지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통일애국역량은 ≪통일연대≫로 집중되고 있고, 자주적 민주역량은 ≪민중연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두 개의 역량이 두 개의 조직형태로 병존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식민지에서의 잠정적 현상이며, 통일전선운동이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장차 유일적인 통일전선조직으로 결합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정파별, 지역별, 단위별로 분산성과 분열성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운동세력의 영도적 구심체인 전위조직과의 관계도 아직 미완상태에 있습니다.

형성기를 경과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은 각이한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이 연대・집결한 전선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선명한 기치를 들 수 없는 것이

필자는 이 논문을 집필하면서 ≪두 개의 전선론≫이 ≪남북관계론≫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하여 이론적 착오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두 개의 전선론≫을 ≪남북관계론≫의 낙후한 관점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재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종전의 ≪두 개의 전선론≫을 ≪하나의 주체와 두 역량, 하나의 전선과 두 임무론≫으로 보완 · 수정합니다.

현실입니다. 형성기의 지역통일전선에 연대・결집한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이 당면하여 들어야 할 기치는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이며, 그 강령은 민족자주, 민주개혁, 6.15 공동선언의 실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신식민지의 지역통일전선은 일정기간 동안 민족자주, 민주개혁,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하여 연대・결집된 통일전선으로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은, 원래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의 실현이라는 전략목표로 이해되었는데, 최근에 혁명기지에서는 반파쇼민주화라는 개념을 반괴뢰민주화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부파시스트세력의 퇴장 이후 반파쇼민주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대신 괴뢰정권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반괴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각계각층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지역통일전선으로 연대・집결시키는 조직・정치사업에서 반괴뢰민주화라는 표현을 일반대중에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까닭에 필자는 민주개혁 실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혁이라는 개념은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개혁을 의미하므로,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고 보장하는 과업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론하겠습니다.

또한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 가운데 통일강령도 종전대로 조국통일 실현이라는 전략목표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변화된 정세에 걸맞게 6.15 공동선언 실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일반대중에게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지난해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전선과 신식민지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지역통일전선을 구분하고 전자를 ≪민족통일전선≫으로, 후자를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논문에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통일전선에 대하여 논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기치로 든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과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비록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들이 각기 조금씩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두 개의 전선론≫은 통일전선에 관련한 이해에서 대체로 전반적인 동의를 얻은 이론으로 일단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논문을 집필하면서 ≪두 개의 전선론≫이 ≪남북관계론≫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하여 이론적 착오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두 개의 전선론≫을 ≪남북관계론≫의 낙후한 관점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재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종전의 ≪두 개의 전선론≫을 ≪하나의 주체와 두 역량, 하나의 전선과 두 임무론≫으로 보완・수정합니다. 필자의 재해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조국통일이라는 양대 임무를 수행합니다. 혁명의 주체는 하나이지만 그 지위, 역할, 역량은 서로 구분됩니다. 하나의 혁명주체는 주도와 방조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며, 그에 따라 주도와 방조의 역량으로 편성됩니다.

둘째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는,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을 주도역량으로 하고, 그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광대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방조역량으로 하여 자기의 역량을 편성합니다. 또한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기치로 든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조국통일역량을 주도역량으로 하고, 그리고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전국적 통일전선의 통일애국역량을 방조역량으로 하여 자기의 역량을 편성합니다.

셋째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은 하나의 주체가 지니고 있는 두 종류의 역량입니다. 인민대중의 통일적 역량이 양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조국통일위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하나이므로, 그 위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도 하나이어야 마땅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전국적 통일전선과 조국통일위업에 복무하는 전국적 통일전선은 두 개의 전선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적 전선입니다. 조선민족의 통일전선은 하나이며, 그 유일적인 통일전선이 조국통일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양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조국통일위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도 하나이고, 통일전선도 하나라는 사실은, 조국통일위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영도하는 사상이 하나의 사상이라는 사실과 부합하며, 또한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이 하나의 영도체계 안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부합합니다.

여섯째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은 신식민지에만 존재하는 지역통일전선이 아니라 혁명기지까지 망라하는 전국적 통일전선으로 확대하여 사고해야 합니다. 또한 조국통일위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은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라는 두 단계의 통일전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곱째로, 지금 신식민지에서는 독자적인 발전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존속하는 지역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통일전선이 장차 전국적 통일전선에 해소・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1949년 6월에 평양에서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조선노동당을 영도적 구심체로 하여 형성된 전국적 통일전선조직이었습니다. ≪조국전선≫은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과 자주적 민주역량을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의 역량으로 연대・집결시킨 전국적 통일전선조직이었습니다. 그 전선조직은 미제가 자행한 분할점령과 탄압말살책동 때문에 더 이상 강화・발전되지 못하고, 미완의 전국적 통일전선조직으로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전국적 통일전선은 ≪조국전선≫의 역사적 경험을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통일전선으로 될 것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조선 외교통상부장관의 망발 규탄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2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조선의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이 부쉬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추어 주면서 동족을 해쳐 보려는 추악한 속심을 드러내 놓은것과 관련하여 28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은 미국에 가서 부쉬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추어 주고 마치 그 결과로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게 된것처럼 상전에게 아부아첨하는 비렬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대외관계를 담당했다는 자가 이따위 나발을 불어 댄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발전시키려는것보다 상전의 비위나 맞추고 그의 힘을 빌어 어떻게 하나 동족을 해쳐 보려는 추악한 속심을 드러내 놓은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북남사이의 합의에 따라 일시 중단되였던 흩어 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들이 추진될수 있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강경압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동결상태에 처했던 북남관계가 원상회복되고 북남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다시 시작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민족문제를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성의 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런데 남조선의 ≪외교통상부≫장관이라는 자가 미국에 찾아 가 북남관계가 회복되여 가고 있는것이 마치도 미국의 ≪힘≫의 정책의 결과인듯이 허튼 악담질을 한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이고 도전이며 참을수 없는 사대굴종행위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최성홍의 망발이 6. 15북남공동선언과 4. 5공동보도문에 따라 북남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찬물을 끼얹는 죄악적인 반민족행위로 된다고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공동보도문이 리행단계에 들어 선 때에 남측당국자들속에서 튀여 나온 이러한 망발은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어 엎고 정세를 또다시 긴장격화의 국면에로 되돌려 세우려는 매우 위험한 배신행위이다.

특히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에 책임이 있는 고위당국자가 한 이러한 망발은 결코 그 어떤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당국의 공식적인 립장을 대변한것이라는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과 아량을 미국상전에게 아부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미국의 ≪힘≫의 정책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그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며 민족내부문제를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자체로 풀어 나가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다.

호의를 악의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보복의 철추만이 내려 질뿐이다.

최성홍과 같이 미국상전을 섬기며 동족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반역도배들은 즉각 제거되고 매장되여야 한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6. 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바랄수 없으며 북남관계의 진전도 기대할수 없다.

남측당국이 진실로 6. 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가 진전되기를 바란다면 이번 ≪외교통상부≫ 장관이란 자의 망언에 대해 사죄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적이고도 납득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지켜 볼것이다.

최성홍, 장관 자리에서 당장 떼버려야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30일

30일부 ≪로동신문≫은 남조선의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이 미국에 찾아 가서 부쉬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추어 주는 망발을 늘어 놓은것을 단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미국의 대조선강경압살정책으로 하여 동결상태에 처하였던 북남관계가 원상회복되고 북남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다시 시작된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성의 있는 노력의 결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그가 미국상전을 찾아 가 북남관계의 진전이 마치도 미국의 ≪힘≫의 정책의 결과인듯이 허튼 수작질을 한것은 민족반역행위인 동시에 대화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도전행위이라고 규탄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민족적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그 앞길에 훼방을 놓는 반통일대결분자인 최성홍을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리에서 당장 떼버리는 책임적이고 납득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6. 15공동선언이 귀중한가, 민족반역자가 필요한가, 남조선당국은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온 겨레는 남측의 립장과 태도를 지켜 볼것이다.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의 반북대결적인 망발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7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은 최근 워싱턴을 행각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맞장구를 치는 망언을 줴쳤습니다. 이것은 6.15남북공동선언과 공동보도문에 따라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발전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이 깃들기를 바라는 우리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족적인 망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부시행정부는 출범후 그 어느 행정부보다 고압적인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우리 나라의 자주적 통일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대통령 부시는 이른바 ≪강력한 미국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의 정책에 더욱 매어달리면서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위협과 생화학무기위협을 떠들며 사찰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등 당치않는 주장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이북을 침공하고 위한 전쟁준비를 더욱 발광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4년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의 이행마저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는 이북을 ≪악의 축≫이라면서 이른바 ≪반테러전쟁≫을 이북에로 확대하려 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북에 대한 핵공격계획까지 짜놓고 그 실현을 위해 광분하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이같은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긴장되고 6.15공동선언 이행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은 감히 부시행정부의 범죄적 대북강경정책에 맞장구를 치는 사대매국적이고 반통일적인 망발을 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남북간에 제4차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공동보도문이행을 위한 사업이 실천단계에 들어선 때 당국자들속에서 튀어나온 이런 망발은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어놓으려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각계 민중은 이에 분노의 치를 떨고 있으며 최성홍과 같은 반북대결분자의 목을 당장 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책임있는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이런 망발이 튀어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국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국은 남북관계의 원상복구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온 민족앞에 이에 대해 반드시 명백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계 민중의 일치한 주장대로 미국상전에 아부하면서 사대매국적이고 반통일적 망발을 한 최성홍을 즉시 외교통상부장관에서 해임시키고 온 민족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각계 민중,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 강력 규탄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30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은 최근 미국에 가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추어주고 마치 그 결과로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게 된 것처럼 악담을 늘어놓아 남북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는 각계 민중을 분격케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재야인사 성모씨는 미국에 가서 한 최성홍의 망발은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미상전의 비위나 맞추고 그의 힘을 빌어 어떻게하나 동족을 해쳐보려는 흉악한 속셈을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성홍을 그대로 두면 대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개선에도 적지 않게 지장을 받는다며 즉시 외교통상부장관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천시에 사는 회사원 오모씨는 외교통산부장관 최성홍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마치 남북관계를 개선시킨 것처럼 떠든 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용납못할 모독이고 도전이며 참을 수 없는 사대굴종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성홍이 민족앞에 더러운 오점을 남겼다는 걸 명심하고 즉시 사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박모군은 남북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공동보도문이 이행단계에 들어선 때에 최성홍이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을 찬양하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은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어엎고 정세를 또다시 긴장격화의 국면에로 몰아가려는 위험한 작태라며 이것은 결코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이어서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의 망발을 규탄하며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각계 민중의 목소리는 아주 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책동으로 동결상태에 있던 남북관계가 원상회복되고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비롯해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이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해결해나가려는 이북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사회가 일치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장관이라는 자가 미국에 찾아가 상전앞에서 꼬리를 치며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 마치도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의 결과인 듯이 추어주었는데 이것은 사대매국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최성홍과 같은 너절한 인간, 사대굴종사상이 머리끝까지 꽉 차있는 분자들을 그대로 두면 또다시 좋게 발전하기 시작한 남북관계가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성홍은 전 통일부장관 홍순영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킨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규탄을 받고 물러난 것처럼 자기 잘못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남북공동선언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고 남북관계도 진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치한 지적입니다.

각계 민중은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오직 사대굴종행위만을 자행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을 제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미군철수투쟁과 함께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성명

얼마전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은 미국에 찾아가 현 남북관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이 마치도 미국의 강경정책의 결과인 것처럼 부시행정부를 찬양하고 한미공조를 애걸하며 이북을 헐뜯는 망발을 내뱉었다.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통일도 안중에 없는 매국역적의 추악한 넋두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민중은 최성홍의 얼빠진 망동에 대해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현당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최성홍의 망발을 6.15공동선언과 4.5공동보도문에 따라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거세하는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로 낙인하고 이를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자주로 존엄높고 일심단결로 강위력한 이북에는 그 누구의 강경정책이나 압력이 통하지 않는다. 이북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역사적 숙원인 민족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내외반통일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빚어진 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선언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고 지난 4월초 공동보도문을 마련하였으며 그 실천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오늘 공동보도문에 따르는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이 활발해지고 대결국면에로 치닫던 한반도정세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북의 성의있는 노력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현당국자들속에서 또다시 튀어나온 이같은 망발은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어놓으려는 반민족적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그 이행을 위한 전 과정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결,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제침략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최성홍과 같은 추악한 매국역적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개선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확증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현당국자들은 이북의 6.15공동선언이행의지와 민족애를 외면하면서 동족공조가 아니라 상전 미국에 빌붙어 공동선언이행을 각방으로 방해하는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책임있는 고위당국자의 이번 망발은 결코 그 어떤 개인적 소신이 아니라 현당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는 엄중한 것이다.

현당국은 이에 대해 구구한 변명으로 발뺌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온 겨레앞에 명백한 대답을 해야하며 애송이처럼 민심도 분간못하는 사대매국노 최성홍을 제명해야 할 것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다.

현당국자들은 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배치되는 사대매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자 미국과의 공조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동족공조에로 나서야 한다.

우리 민중은 당국자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를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일치단결하여 매국역적, 통일의 걸림돌을 가차없이 매장해버릴 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미국과 친미사대매국노들의 대북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새아침을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주체91(2002)년 4월 29일
서울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노농국장 담화

오늘 우리 노동대중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조국통일을 위한 가열찬 투쟁속에서 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명절인 메이데이 112주년을 맞고 있다.

5.1절은 지구촌의 모든 노동대중이 온갖 지배와 예속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자기의 자주성과 권익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는 날이다.

≪한국≫의 노동대중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고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불굴의 기개를 과시하며 간고하고도 준엄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전년에 이르러 우리 노동대중은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우리 노동대중은 역사적 숙원인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반세기이상 이 땅의 식민지지배자로 군림하여온 미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6.15공동선언관철로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노동대중의 지향을 무참히 짓밟으며 처절한 식민지 노예적 삶을 강요하고 있다.

있지도 않은 북위협론을 고창하며 ≪악의 축≫폭언을 연발하고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이면서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를 몰아오고 있는 부시호전광의 간악한 책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못할 유린행위이며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려는 대범죄행위이다.

미국침략자들은 ≪한국≫경제를 저들의 철저한 식민지예속경제로 만들어놓고도 부족해 약탈적인 경제정책과 강도적인 구조조정압력으로 노동대중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리려고 악착하게 책동하고 있다.

외세가 주인된 땅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날마다 고용불안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과중한 세금부담, 엄청난 교육비지출로 삶의 막바지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천부적인 생존권보장요구마저 불법으로 몰려 탄압당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악랄한 침략책동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발발위험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식민지 ≪한국≫은 자주의 폐허지대, 민주민권의 사각지대, 부익부빈익빈이 극대화된 인간생지옥으로 전락되고 지구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노동살인국, 식민지노예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노동대중의 참다운 권익과 생존권도 보장할 수 없으며 6.15공동선언도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노동대중은 더이상 미제침략자들에게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자로 짓밟히면서 민족공멸을 초래할 핵전쟁책동의 희생물로 될 수 없으며 미국자본의 횡포에 우리의 **를 **당할 수 없다.

단결은 메이데이의 상징이다.

오직 단결과 투쟁만이 우리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고 진정한 노동해방과 민족의 자주권, 꿈에도 소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다.

이 땅의 1300만 노동대중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일치단결하여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며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반미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모든 노동자들과 노동운동단체들은 각계 애국민중과 굳게 연대연합하여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친미우익보수세력의 집권책동을 반대배격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조직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이 땅의 노동형제들과 어깨겯고 인간의 참삶이 보장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통일된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거세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주체91(2002)년 4월 30일
서울

외국인들을 위한 ≪아리랑≫공연 성황리에 시작

20여개 나라 손님들 관람, 6월 29일까지 54번 진행된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외국인들을 위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성황리에 시작되였다.

4월 29일 평양 릉라도에 위치하고 있는 5.1경기장은 ≪아리랑≫관람을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 20여개 나라의 외국인관광객들과 해외동포들의 열기로 들끓었다.

≪아리랑≫에는 조선의 이름난 예술인들과 청소년학생들, 전국에서 선발된 근로청년들 10만명이 출연한다. 작품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조선사람이 사는곳이라면 어디서든 울리는 민요 ≪아리랑≫을 주제로 삼아 조선민족의 력사와 생활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 보인다.

서장과 종장 그리고 ≪아리랑민족≫, ≪선군아리랑≫, ≪아리랑무지개≫, ≪통일아리랑≫의 4개 장으로 구성된 작품은 화려한 공연무대와 변화무쌍한 대형배경대, 전광을 비롯한 각종 효과설비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리랑≫의 주제에 따라 신비경을 펼치는 민족적향취가 넘친 작품으로 완성되였다.

지난날 망국의 설음안고 눈물속에 ≪아리랑≫을 부르던 조선민족이 오늘은 새로운 시대감정을 지니고 행복의 ≪아리랑≫을 부른다. 선명한 주제와 째여진 구성을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전면적인 배합으로 형상한 작품은 관객들에게 예로부터 선량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슬기롭고 재능 있는 아리랑민족의 참된 모습을 인상깊이 안겨 주었다.

공연을 관람한 외국인들은 ≪조선의 집단체조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 진면모를 알수 없다.≫며 작품의 규모와 형식에 감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해 하였다. 특히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한 대형배경대는 조선에서만 준비할수 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벅찬 현실은 서방측 언론들이 전하는것과 다르다≫고 자기 소감을 피력하군 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아리랑≫공연이 시작되면서 평양은 여러 나라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축전도시로 변모하였다. 호텔을 비롯한 영접시설이 더 잘 갖추어지고 식당을 비롯한 각종 봉사망도 새로 꾸려 졌다. 외국인관광객들은 체류기간 평양시내와 지방의 명승지들도 돌아 보게 된다.

외국인의 공연관람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여러 나라 고찰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는바 ≪아리랑≫공연준비위원회에 의하면 각국에서 공연관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고조되고 예약주문과 신청자가 계속 늘어 나고 있다. 2개월간의 공연기간 외국인들을 위해 준비된 관람석의 약 절반이 이미 판매되였다고 한다.

≪아리랑≫공연은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54번의 공연이 예정되고 있다.

2002/05/01 조선신보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북남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 발전시킬수 있게 된 북남사이 공동보도문(4월 5일) 합의사항에 따라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제4차 흩어 진 가족, 친척상봉이 시작되였다. 제4차 흩어 진 가족, 친척상봉은 원래 작년 10월에 예정되고 있었다. 그런데 부쉬정권의 대조선압살정책이 로골화되고 반통일세력의 도전으로 엄혹한 정세가 조성, 북남관계가 동결된 속에서 이 사업도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4월초 남측의 요청에 따라 남조선대통령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한것을 계기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북과 남이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동결되였던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할데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흩어 진 가족, 친척상봉은 북남관계가 새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첫 출발이 되는 사업이다.

28일 남측방문단 99명이 고성항에 도착, 180여명의 북측혈육들과 만나 상봉의 기쁨을 나누었다.

28일 오후에는 금강산려관 2층홀과 식당에서의 집체상봉, 북남혈육들이 모두 자리를 같이한 조선적십자회 주최의 연회가 있었으며 29일에는 려관 호실에서의 가족단위상봉 등이 있었다.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은 얼싸 안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쌓이고 쌓인 회포를 나누었다.

북측 가족인 리신호씨는 작년 10월시점에서는 어머니와 만날 예정이였는데 그 동안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대신하여 찾아 온 누이 리부자씨를 만났다. ≪우리가 헤여 진것도, 어머니를 못 만난것도 모두 미국놈때문이다.≫ 통곡하였던 그는 안착이 되면서 ≪두 수뇌분이 마련해 주신 6.15공동선언을 리행하여 꼭 민족자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30일 아침 상봉자들은 작별인사를 나눈 다음 남측성원들은 귀로에 올랐다.

이어 1일부터 3일까지 북측의 가족, 친척 100명이 남측 450여명의 혈육들과 상봉하게 된다.

라기철 강이룩 기자
2002/05/01 조선신보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을 열렬히 환영한다

이산가족 850여명이 순차방문형식으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금강산에서 2차례에 걸쳐 상봉한다.

통일연대는 임동원 특보의 평양방문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됨으로써, 지난해 외세의 간섭과 긴장정책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된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벌여졌던 긴장상황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상봉이 반년만에 재개된 것은, 분단으로 인해 발생된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을 다시금 열어놓고 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분단으로 발생된 우리 민족의 커다란 상처이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며,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6 · 15남북공동선언 채택은 이것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지극히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한반도를 생존을 흔들어놓을수 있는 전쟁책동 등으로 민족의 그 어떤 화해와 대화도 불가능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북퍼주기 등 반통일수구세력의 각종 민족대결의식 고양은 6 · 15남북공동선언 실현이 좌초될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은커녕 한반도를 전쟁의 불바다로 몰아넣을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다행히도 남북의 대화는 재개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금 재개되었다.

이는 제 아무리 외세의 간섭과 긴장고조정책이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몰고가려해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사뭇 큰 것이다. 하기에 통일연대 이산가족 상봉을 열렬히 환영하며, 더 많은 이산가족이 상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통일연대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주의적 문제가 더 이상 외세와 이남내의 반통일수구세력의 압력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며, 분단으로 인해 발생된 또 하나의 인도주의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장기수 송환도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통일연대는 이산가족 상봉등 인도주의적 문제가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6 · 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민족화해와 단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2년 4월 28일
6 · 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제6차 부평미군기지반미연대집회 진행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5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범민련 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 민주개혁부천시민연대,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인천대학교학생연대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대학생들은 지난 20일 부평 미군기지앞에서 제6차 부평미군기지반미연대집회를 갖고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체결과 ≪F-15K≫기 도입을 규탄배격했습니다.

집회에서 연사들은 한결같이 연합토지관리계획체결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F-15K≫기 도입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결과만을 가할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반미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롯데백화점앞에서는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등 각계 시민들이 부평미군기지이전비용부담반대, 환경오염원상복구를 주장하는 서명 및 선전전을 힘차게 벌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적 의지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25일에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이 땅에서 기지로 사용하던 불모의 땅 4194만평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반환하는 대신 오산, 평택, 의정부, 포항 등에 있는 땅 154만평을 미군기지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미군기지이전과 신설을 위해 무려 11억달러의 자금을 ≪한국≫이 미군측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 및 신설책동이 미군의 환경오염책동으로 쓸모없게 된 불모의 땅을 노른자위 땅으로 바꾸기 위한 책동이며 더욱이는 북침을 위한 군사전략에 따른 북침전쟁책동의 일환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신설책동이 실현될 경우 수많은 귀중한 우리의 땅이 또다시 황폐화될 것은 물론 새로운 전쟁위험이 증대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한미군기지는 지금 이 땅에서 전쟁과 살육, 공포의 발원지로, 저질문화와 환경오염, 소음공해, 마약유출 등 각종 사회악의 온상지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와 미군기지반환을 요구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온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마치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우리 국민을 우롱하며 북침전쟁준비에 따른 군사기지재배치를 꾀하면서 이 땅에 대한 영구강점기도를 드러내놓고 있으니 참으로 분격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F-15K≫기 구매강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북침전쟁을 위한 것으로써 남북의 화해와 통일분위기에 역행하는 반평화, 반통일책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F-15K≫기 구매강요는 그 누구를 위한 선사품이 아니며 판로가 막혀버린 낡은 기종을 저들의 식민지 이 땅에 들이밀어 위기에 처한 미국의 군수업체들을 구출하자는데 그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식민지 이 땅에 대한 종주국인 미국의 오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군당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매국적인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을 체결하고 6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까지 미국 군수업체들에 퍼부으며 낡은 소품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친미사대매국이 골수에까지 들어찬 역적들만이 할 수 있는 매국배족행위라 하겠습니다.

한미토지관리계획협정과 ≪F-15K≫기 선정이 발표되자마자 온 국민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결연한 반미투쟁의지를 똑바로 보고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연합토지관리계획과 ≪F-15K≫기 구매강요를 당장 취소하고 이 땅에서 물러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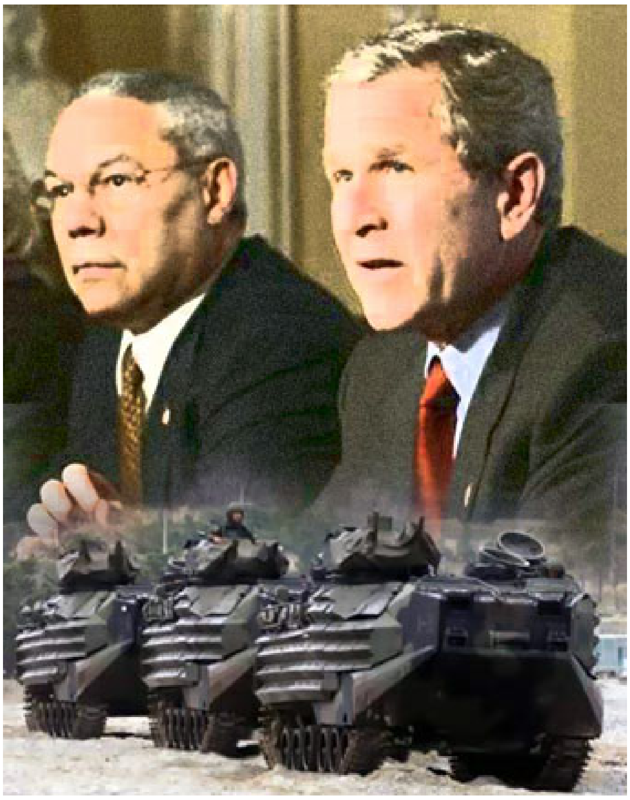
아울러 군당국자들은 저들의 사대매국행위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반역적인 친미사대매국행위를 그만 두어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무장관 파월, 세론에 도전하는 망발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8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무장관 파월은 최근 상원 세출위원회 외교활동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은 부시가 밝힌 ≪악의 축≫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겠다느니 우리는 북에 대한 부시의 개념규정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느니 뭐니 하는 용납못할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북에 대한 ≪악의 축≫규정을 철회하라는 세론에 도전하는 용납못할 작태라 하겠습니다.

호전광부시의 ≪악의 축≫론은 그가 담고 있는 침략적이고 범죄적인 성격으로 해서 세론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월은 부시의 침략적인 망발의 엄중성을 느낄 대신 부시가 밝힌 ≪악의 축≫입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가겠다며 북에 대한 침략위협을 계속 가할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악의 축≫론은 북에 대한 악의에 찬 시비중상이고 힘으로 북을 압살하려는 침략전쟁의식의 발로였습니다.

미국의 대북압살기도는 부시호전집단에 의해 극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퍼런 칼을 빼들고 강도질을 하면서도 제편에서 강도야하고 소리치는 것이 미국의 본성이고 행동방식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기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육무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것을 평화적인 국민들을 학살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대량살육무기들은 그 누구를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자주권수호를 위한 북의 자위적 국방력강화조치가 저들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거꾸로 걸고들며 그를 군사적 침략의 구실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들은 대량살육무기를 휘둘러대며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고 지배해도 되지만 북은 자위를 위한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강도적 논리인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부시의 이러한 강도적 논리를 규탄하면서 그것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잘 알고 있는 파월이 부시의 ≪악의 축≫입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가겠다고 떠든 것은 북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침략책동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지금 북과의 전제조건없는 대화에 대해 떠들고 있습니다. 북을 여전히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공격을 가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미국이 북과 마주앉아보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규탄하는 세론을 잠재워보려는 하나의 제스추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이 진실로 이북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을 취소하고 날로 노골화되는 대북압살기도를 즉시 버려야 합니다.

미국이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F-15K》 도입반대투쟁과 청년학생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9일~30일



최근들어 우리 청년학생들속에서 반미운동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더욱 활기있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현규씨를 모시고 지금 경향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미투쟁방도들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반미운동을 활성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얘기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반미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힘차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북침전쟁무기인 《F-15K》도입을 반대하는 투쟁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F-15K》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관해 얘기 나누려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속에서 《F-15K》도입반대투쟁이 어떻게 벌여져왔는지 그에 관해 먼저 말씀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규 : 지금 온 경향을 휩쓰는 《F-15K》도입반대투쟁은 부시행정부출범이후 더욱 악랄하게 강행되고 있는 미국의 무기강매압력반대투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청년학생들이 부시방한반대투쟁의 일환으로 미국대사관과 여의도역에 있는 미국보잉사간판점거투쟁을 벌인 것을 통해서도 《F-15K》도입을 반대하는 각계 민중의 투쟁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잘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보잉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를 강요하는 항의의 대상이다》라고 한 것은 결코 우연치 않습니다.
이같은 투쟁은 이 땅의 호전세력이 미국의 무기강매압력에 굴종해서 차세대전투기로 《F-15K》기를 선정하려고 책동하는 것을 계기로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미국전투기도입을 반대하는 농성과 시위투쟁이 여러 운동단체 회원들의 참여속에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F-15K》도입을 반대하는 각계층 운동단체들의 성명이 연일 울려나왔으며 인터넷게시판들에는 《한국이 보잉사의 재고창구인가》, 《《F-15K》선정은 실력 안되는 학생을 억지로 합격시킨 꼴》이라는 내용의 글이 연속 올라왔습니다.
사회자 : 그런속에서 한총련은 백만청년학도 모두가 차세대전투기도입의 전면폐지와 북침전쟁책동분쇄를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설 것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F-15K》기종선정은 6.15공동선언발표후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는 민족사적 대세에 맞지 않는 행위입니

다. 지금 이 땅에 필요되는 건 민족적 화해분위기이지 같은 민족을 해칠 살인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수십개의 전투기를 이 땅에 들이밀려하는 건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덮씌우려는, 그래서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미국의 ≪F-15K≫전투기강매압력에는 우리 민중의 혈세를 짜내어 저들 군수업체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교활한 계책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대학가와 노동대중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는 ≪종이비행기≫라는 가요에도 쓰여져 있지만 1970년대에 설계, 개발된 ≪F-15K≫전투기는 차세대는 고사하고 현세대에서도 그 사용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고철덩어리가 아닙니까. 지금 사회일각에서 미군이 용도폐기한 폐물전투기를 떠넘긴다는 주장이 일고 있고 ≪F-15K≫전투기를 예전 ≪독수리≫에 비유하는 건 우연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 같은 전투기를 팔아먹으려고 암암리에 압력을 가하면서 기업폐쇄위기에 놓인 ≪F-15K≫생산업체를 비롯하여 군수업체들에 막대한 치부를 가져다주려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 군사력증강에 비낀 미국의 검은 속셈을 들추어볼수록 미군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재난밖에 입을 것이 없다는 것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호전세력은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차세대전투기기종으로 ≪F-15K≫기를 확정하는 매국행위를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투쟁을 벌여나가야겠는지 계속 말씀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규 :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학생들은 미국의 무기강매압력의 저의를 각계 민중들속에 알려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줄 압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성명과 성토문 그리고 백서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문서들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시위와 집회들을 줄기차게 전개하여 ≪F-15K≫강매와 군사력증강에 담겨진 미국의 검은 속셈을 낱낱이 발가놓아야합니다. 그래서 더많은 사람들이 대오각성하여 미국의 무기강매압력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나서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청년학생들은 대미군사적종속관계를 분쇄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F-15K≫전투기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이남 무기체계의 대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미국 무기수입의 종속관계를 영구화하려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미군사적 종속관계가 지속되는 한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 민중은 미국 군수업체들의 치부의 대상으로, 전쟁희생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자 : 그러한 투쟁들과 함께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를 비호해나선 민족반역세력을 반대하는 투쟁도 계속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줄 아는데요.

김현규 :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종한 이 땅의 호전세력은 ≪F-15K≫기 선정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느니 뭐니하며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를 비호두둔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부시행정부의 대변지들은 광고란까지 설정하고 ≪F-15K≫전투기를 가장 검증된,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발전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F-15K≫도입문제를 단순히 차세대전투기선정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로만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고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F-15K≫도입책동을 반대해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F-15K≫도입문제를 두고 의미 깊은 얘기들 많이 나눴다고 봅니다. 무기구매를 강요하는 미국의 추악한 행위에 대한 분노를 모아 우리 청년학생들이 벌이는 반미반전투쟁에서 더 훌륭한 성과를 기대하며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F-X사업≫은 감사원도 못 건드리나



≪국민 80%가 반대하는 F-X사업에 대한 감사를 왜 못하겠다는 거죠?≫

4월29일 낮 12시경, 서울 삼청동 감사원 정문 앞. 국방부 F-X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이하 자통협) 회원들과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감사원장을 직접 만나 F-X사업 감사의 절박함을 알리겠다는 자통협의 요구에 감사원쪽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가로막고 나선 것. 자통협측이 ≪미리 공문도 보내고 사전연락을 했는데 서한 전달을 가로막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하자, 감사원 직원은 ≪남의 집에 올 때도 미리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맞섰다.

이에 민족통일회의 김수님 대표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감사원이 왜 국민의 길을 가로막느냐≫며 반발했다.

자통협은 이에 앞서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국방부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오후 3시 감사원에서 열리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에서 F-X사업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측은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상 F-X 관련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바 있다. 이에 자통협 상임의장 홍근수 목사는 ≪감사원은 부정과 불의에 대해 공정하게 감사하는 곳≫이라며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F-X사업에 대한 감사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통협 김종일 사무처장 역시 ≪라면박스 하나 훔쳐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라면박스 보다 훨씬 거대한 F-X사업에 대해서는 왜 조사 못하겠다는 거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자통협은 F-X사업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가 필요한 이유로, ▲F-15K선정으로 이한 막대한 국익 손실 ▲선정과정에서의 불법로비의혹 ▲남북화해협력정책 훼손 ▲부시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국가주권 포기 행위 등 모두 4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 정문 앞에 주저앉아 회의가 열리는 오후 3시경까지 시위를 벌이던 자통협 회원들은 감사원장이 끝내 면담을 거부하자 국민감사청구심사회의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석하려던 경실련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 감사원 회의에서는 F-X사업 국민감사청구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자통협 김현진 홍보부장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으나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로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자통협측은 ≪만약 감사원이 F-X 감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꾸준한 집회와 투쟁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가겠다≫고 경고했다. 자통협은 4월30일 오후 12시부터 대통령의 F-X 재가거부를 요구하는 집회를 청와대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전미진 기자
2002/04/29 오마이뉴스



≪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 원해≫

F-X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집회 열려



≪우리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30일 낮 12시 옥인동 범혜사 앞에서 ≪F-X 사업 외압 의혹 진상규명 및 F-15K 선정 철회 공동행동≫(이하 F-X공동행동)주최로 열린 ≪F-15K 선정 대통령 재가 거부 촉구 제1차 청와대 앞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F-15K 선정 철회≫ 결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F-15K 선정에 대한 재가를 거부하고, F-X 사업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집권말기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회사를 통해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가 F-X ≪사기≫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의 피와 땀, 눈물로 전쟁무기를 사들이는 F-X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종렬 상임의장은 ≪우리는 미국의 노예가 아니다. 미국의 전쟁무기를 사들여 동족간의 분쟁을 일으켜왔던 과거의 고리를 끊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지금 전국민이 F-X사업 거부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임종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는 규탄연설을 통해 ≪지난번 NGO단체들과의 간담회 때 김동신 국방장관이 ≪F-X사업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지금 F-15K 선정을 둘러싼 의문에 대해서 하나도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F-X사업을 파행적으로 추진한 김동신 국방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원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대표는 어제 있었던 감사원 앞 기자회견에 대해 언급하며 ≪감사원이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진행하는 사업에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감사에 나서야지 무슨 심의위원회냐≫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F-X사업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서경원 공동대표가 규탄연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 경찰은 집회대열 앞에 있던 F-X사업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F-15K 모형관≫이 신고되지 않은 시위용품이라며 경고방송을 내보냈고, 참가자들은 허가된 집회장소에 경찰이 난입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다음 규탄연설을 박유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이 진행하고 있을 무렵 참가자들의 오른쪽에 위치해있던 6-7명의 경찰들이 ≪F-15K 모형관≫을 빼앗기 위해 집회장소를 급습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던 집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버렸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방해한 경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허가된 집회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종로경찰서 현장책임자와 서장에 대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F-15K 모형관≫을 빼앗은 경찰은 참가자들의 항의에 아무런 대답없이 집회장소에서 물러갔다.

한바탕의 소동 후에 참가자들은 대열을 정리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F-15K 선정 재가를 거부하고, F-X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1차 청와대앞 집회를 마무리했다.

장동렬 기자
2002/04/30 통일뉴스

≪미군 개입 민간인포함 7천명 학살≫

대전 산내학살 다룬 외신기자 증언록 발굴



1950년 7월, 대전형무소 수감 정치범 및 인근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학살된 일명 ≪대전 산내학살사건≫과 관련 학살지인 대전 골령골에서의 학살이 17일까지 이어졌고 희생자 수가 민간인을 포함, 7천여 명에 이른다는 당시 외신기자의 증언록이 발굴됐다.

이같은 내용은 그동안 국내 각 언론이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비밀해제된 문서를 토대로 보도한 대전형무소 정치범에 한해 3일동안 1800여 명이 학살됐다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자체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민간인을 포함 최소 3천명 이상이 학살됐다≫는 지역 민간조사단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2000년 오마이뉴스 보도)

국민일보와 MBC는 30일, 민주당 전갑길 의원의 공개한 50년 당시 영국에서 발행된 일간지 데일리 워커의 앨런 위닝턴 기자가 쓴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I saw the truth in Korea)와 영국 유력 주간지 업저버의 필립 딘 기자가 쓴 ≪나는 한국에서 포로였다≫(I was captive in Korea) 등 두 권의 한국전쟁 당시 형무소 학살 관련 증언록을 보도했다.

이 자료에서 데일리 워커의 앨런 위닝턴 기자는 그의 저서를 통해 대전형무소 학살과 관련 ≪학살 직후 대전 인근 낭월리를 방문했으며 6개의 구덩이 속에 7000여 명의 피학살자가 묻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이 7월4~6일과 7월17일 두차례 실시됐으며 특히 2차 학살때는 여성을 포함한 재소자 이외의 민간인 학살도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미군의 지시에 따라 일어난 학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당시 총살 집행 책임자(당시 도경찰국 사찰주임)인 변홍명(가명) 씨도 1992년 월간 ≪말≫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 3일동안은 나무에 묶어놓고 죄수들을 처형했고, 그 이후에는 죄수들을 앉히거나 눕혀놓고 처형했으며, 죄수처형이 끝난 그 뒤 3일동안은 보도연맹원과 불순분자로 끌려온 5백여 명을 계속 처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저버의 필립 딘 기자는 1953년 발간된 증언록에서 1950년 7월23일 충북 영동에서 인민군 포로가 됐고 포로생활중 만난 프랑스 카다르 신부(당시 72세)로부터 대전형무소 집단학살의 진상을 들었다고 기록했다. 학살현장을 목격한 카다르 신부는 미군이 철수하기 직전 한국 군경이 1700여 명의 죄수를 트럭에 겹겹이 싣고와 총살했다고 전했다. 또 ≪미군 장교도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대전충남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대전형무소산내학살 진상규명회≫는 ≪당시 총살을 집행한 경찰이 총살 집행장에 미군이 포진해 있었다≫고 했고 ≪미군 장교등이 짚차 두 대에 나눠 타고 현장에 나타나 처형장면을 참관했다≫는 당시 런던 데일리 워커 보도기사도 확인됐다≫며 ≪미국은 학살사건과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심규상 기자
2002/04/30 오마이뉴스

일본총리 야스구니진쟈 참배, 인류량심에 정면도전

로동신문 주체91, 4월 30일



일본에서 당국자들이 군국주의바람을 일구는데 앞장 서고 있다.

지난 4월 21일에 있은 일본총리의 ≪야스구니진쟈≫참배가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일본당국자가 이번에 ≪야스구니진쟈≫를 갑작스럽게 참배한것은 매우 문제성 있는 행위이다.

≪야스구니진쟈≫는 군국주의우두머리 도죠를 비롯한 일제특급전범자들의 망령이 있는 침략과 전쟁의 상징, 군국주의정신적 기둥이다.

이러한 곳에 다름 아닌 일본의 현직총리가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찾아 가 머리 조아리며 전범자들의 명복을 빈것이다.

이것은 일본당국자들이 죄악에 찬 과거를 얼마나 못 잊어 하며 그를 재현하려고 몸살을 앓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일본당국자의 이러한 행위는 지금 일본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도처에서 항의와 규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 교활하게도 참배시기와 형식까지 바꾸어 가며 사람들을 기만하려 한것으로 하여 인류량심의 더 큰 분노와 증오를 자아내고 있다.

일본총리의 ≪야스구니진쟈≫참배는 단순히 그 어떤 풍속을 존중하는 도덕적행동이 아니며 범죄적인 과거를 반성하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집권후 해마다 벌리는 일본집권자의 참배놀음은 그것을 정례화, 공식화하여 군국주의정신무장화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일본총리의 이번 참배는 과거죄행청산을 요구하며 군국화, 해외팽창을 반대하는 아시아인민들과 인류량심에 대한 로골적인 정면도전이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본총리의 참배가 군국주의적인 ≪유사시관련법안≫조작놀음이 벌어 지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는것이다.

알려 진바와 같이 지금 일본에서는 군국주의바람이 그 어느때보다 되게 불고 있다.

≪자위대≫의 무력이 증강되고 있으며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의 합법화와 국내의 전시체제수립이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침략의 법적준비의 마지막고리로서 전쟁에 인적 및 물적자원을 총 동원하기 위한 ≪유사시관련법안≫이 국회심의에 제출되였다.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적, 법적준비가 마지막단계에 이른 지금 일본반동들에게 남은것은 바로 군국주의정신무장화를 실현하는것뿐이다.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피바다에 잠근 일제의 광신적인 사무라이정신과 행위를 따르도록 하자는데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의 진짜목적이 있으며 군국주의정신무장화의 핵이 있다.

이러한 군국화책동을 일본의 최고위당국자가 앞장에서 이끌고 있다는데 보다 큰 엄중성이 있는것이다.

이번에 일본당국자는 내외의 항의와 규탄이 두려워 참배시기와 형식에 대하여 운운하였는데 그것은 저들의 본심을 감추기 위한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

≪진쟈≫안에서는 전범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밖에 나와서는 그 무슨 ≪리해≫와 ≪평화≫, ≪친선≫을 바란다는 안팎이 다른 넉두리를 하는것은 가소롭고 얄밉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일본이 입만 벌리면 이른바 ≪평화≫와 ≪친선≫에 대하여 표방하지만 평화, 친선은 군국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일본당국자들의 교활한 량면술책은 오히려 아시아인민들의 지난 날의 아픈 상처를 더욱 자극하고 그들의 분노만을 더 크게 할뿐이다.

일본당국자들은 과거범죄를 미화하고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행위가 과연 일본에 리로운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는것이 좋을것이다.

군국화와 해외침략책동이 일본에 가져다 줄것이란 국제적인 고립과 파멸밖에 없다. 이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책동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재침책동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는 조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뼈 아픈 상처와 대일원한의 감정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건드리는 놀음을 그만 두어야 하며 매사에 심중하게 처신하여야 한다.

국방백서 ≪주적≫ 개념 논란 예상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과 관련 정부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체표현에 대해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해 진보.보수 진영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현재의 ≪주적≫ 개념이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하에 5월 말 발간 예정인 ≪2002 국방백서≫에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대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주적≫론은 한반도에서 비상경계령을 발효케 하는 핵심적인 문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를 위한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를 조성하는 문제 ▲민족의 허리를 이어내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군사보장서 합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주적≫개념의 삭제를 주장했다.

또, 대북 전문가들도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주적≫ 개념에 대한 논의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종석(세종연구소) 박사는 지난 19일,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욱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주적 문제는 단순한 명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북한≫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라며 ≪≪주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전반은 아니더라도 군사 분야만큼은 큰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주적≫ 문제가 제기하는 핵심은, ≪남한≫이 ≪북한≫을,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며 ≪≪주적≫ 문제의 핵심은 바로 표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팀장인 서주석 박사도 ≪현재 ≪북한≫은 ≪주적≫ 개념의 철회가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2002년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수록될 경우,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성사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 정세현 통일부 장관 등이 주적론 삭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반면, 국방백서 발간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주적론 삭제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자유총연맹 등 보수세력도 잇따라 반대입장의 논평을 내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한나라당은≪≪주적개념 수정≫ 안된다≫라는 논평을 통해 ≪북측이 우리를 가리켜 ≪원쑤≫니 ≪괴녁≫이니 무시무시한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셈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적개념을 수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북측의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도 29일,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적은 ≪북한≫≫이라고 명시된 국방백서의 주적론을 삭제하거나 대체키로 한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가안보 마저 대북퍼주기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김대중 정부야말로 위험한 ≪안보불감증 정권≫ · ≪안보 미숙아 정권≫이다≫고 논평했다.

같은 날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도 성명을 통해 ≪군사적 대치와 긴장관계 지속으로 남북간 신뢰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적≫ 개념을 삭제 또는 대체할 경우 극도의 안보혼란이 예상≫된다며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송정미 기자
2002/04/29 통일뉴스



≪이회창이 대통령되는건 절대 그냥 볼 수 없죠≫

한나라당 경선 충무체육관 앞, 대전지역 대학생들 이회창 반대 1인시위



지난달 30일 오후 1시에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이회창 반대라는 글이 쓰여진 마스크를 쓰고 1인 침묵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1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의 눈에는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함이 느껴졌다.

이 날은 바로 대전지역 한나라당 경선제를 실시하는 날이었다. 대전지역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1인시위는 원래 이회창 후보 반대를 집회형식으로 하려고 했으나 집회신고를 하지 못해 한나라당 당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마찰을 겪었다. 그래서 약 2시간여 동안 합법적인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왜 이회창 후보를 반대하는 것일까?

충남대 사회과학대 부학생회장인 김종희(시회 · 4)군은 ≪아까 한나라당 당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는데 그들이 왜 반대를 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이회창 후보의 아버지가 친일을 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꺼예요. 하지만 이회창 후보는 그 점에 대해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역사 청산을 하지 않는 인물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냔 말입니까. 그리고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이회창 후보를 더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한남대학교 장윤성군은 ≪6 · 15 공동선언과 임동원 특사의 방북으로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상황에서 빨갱이 운운하며 통일의 분위기를 가라 앉히는 당이 한나라당이고 그 중심축이 이회창 후보이기 때문에 그를 반대합니다≫ 라고 말했다.

비를 맞으며 묵묵히 1인시위를 벌이고 있던 배재대 노래패 박병건군은 ≪이 1인시위를 벌이는 자체가 안타까우면서 참 웃긴 현실이다≫ 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믿지 않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청년학생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판적 사고의 장인 대학을 단순히 직장을 얻기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여기는 대학생들이 많은것에 대해 안타깝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를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모군은 이회창 반대 1인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개개인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밝히고 이회창 후보에 대해 ≪뚝심있게 흔들림 없이 가는 모습을 통해 지금 정치현실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자기의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들이 왜 이런 시위를 하는지 장윤성군의 말을 들어보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후보를 주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아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이회창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회창 반대 1인 시위를 벌이는 이유죠≫

강영우 기자
2002/05/01 유뉴스

어느 한총련 수배자의 ≪교사의 꿈≫

국가보안법 위반 4년째 수배생활 여학생의 공개 ≪교육실습≫

≪학교 밖을 나서는 첫 출근길에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길을 찾아가려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저의 몸을 구속할 진 몰라도 예비교사로서의 꿈과 바람만큼은 짓밟을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학생운동으로 수배생활 4년째를 맞는 한 사범대 여학생이 ≪교육실습≫(교생실습)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실습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구 경북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활동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99년부터 공안기관의 수배를 받고 있는 김정희(26. 사범대 국어교육과 4년) 씨가 주인공.

김 씨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교사가 되기 위해 지난 95년 대학의 문턱을 넘었다. 평범한 대학생활을 가꿀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학생회 활동으로 시작된 학생운동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리고 99년 사범대 학생회장에 당선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인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당연직≫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된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경북대 총학생회 부회장이 되고, 김 씨의 인생은 ≪장기 수배자≫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언제 검거될 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과 수배로 인한 피곤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가 어릴 때부터 결심했던 교사의 꿈을 접게 하지는 못했다.

98년 이후 교사로서의 첫 관문인 교육실습을 나갈 수 있었지만, 그는 수배자라는 ≪멍에≫를 쓴 채 그 꿈을 미루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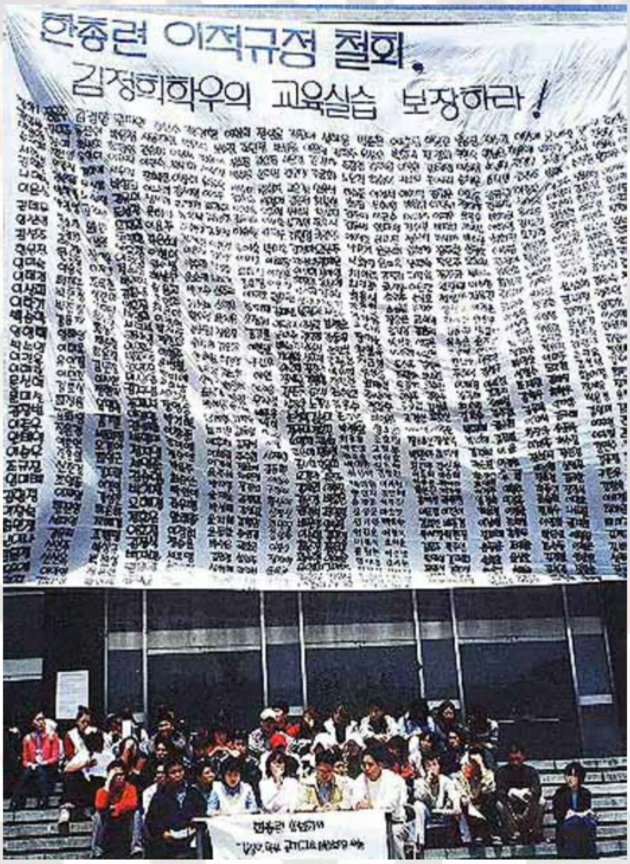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 공개적으로 교육실습을 진행하는 것.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자신의 평생 꿈인 교사로의 첫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 교수들과 본관 측 관계자, 그리고 선후배 교사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의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공개적인 교육실습이었다. 다행히 학교 측도 큰 반대없이 그의 교육실습을 도왔다.

27일 정오 경북대 대강당 앞에서 김 씨는 그의 동료이자 친구인 학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업이 없는 토요일인 탓인지 평소보다 학생들의 발걸음은 뜸했지만, 그의 어깨 너머에는 공개 교육실습을 지지하는 학생 900명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있었다.

경북대 총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국어교육과 학생회 명의로 발표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들은 ≪(김정희 학생은) 한총련이 바로 자신의 양심이었기에 수배생활 4년째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한총련 탈퇴서 한 장이면 보장될 신체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자 하는 결심은 더욱 단단해져 우리가 함께 그 결심을 지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예비교사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교단에 서고자 하는 김정희 학우의 5주간의 교육실습을 보장할 것≫을 공안기관에 요구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 씨는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다. ≪어릴 때부터 교사의 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적규정 정치수배라는 굴레로 인해 그 꿈을 미뤄와야 했지만 올해는 더 이상 숨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첫 출근길에서 연행되어



실습 학교에 발을 딛을 수 없어도 언젠가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총련 10년째, 그리고 한총련이 이적규정에 ≪발목≫이 잡힌지도 벌써 6년째. 그 기간동안 대학생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각 대학 학생회장 등 수 백 명의 대학생들도 한총련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수배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비 수배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만큼 김 씨와 같이 자신의 꿈을 잠시 접어둔 채 살아가는 젊은 ≪인재≫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 교사가 되려한다≫는 한 예비 여교사의 발걸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 교사로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학교로 우리는 그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의 걸음걸음에 눈을 뗄 수가 없다. 그의 아픔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숨길 수 없는 시대의 아픔이기 때문이다.

이승욱 기자
2002/04/27 오마이뉴스

한총련, ≪5월 축전 막지말 것≫

≪더욱더 많은 대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 ≪한국대학생 5월 축전≫의 이름으로 한총련 출범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0기 한총련 대변인 윤경희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2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한국대학생 5월 축전의 평화적 개최보장과 한총련 대의원 구속, 수배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10기 한총련 출범식의 상을 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축전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산업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국대학생 5월 축전≫은 기존 한총련 출범식의 성격을 포함하면서도, 각종 강연회와 문화행사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3일에 있는 ≪Oh! No U.S.A Festival≫은 최근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미열기를 대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4일 ≪한국대학생 아리랑 축전≫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본행사 2부 순서는 참가자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 행사자체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하지만, 10기를 맞이하는 ≪이적단체 한총련≫의 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출범식을 개최하는 산업대 학교본부와 공안당국이 한총련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의 태도에서 별로 변화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대검찰청 면담을 통해 ≪실정법상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되어있어 출범식을 막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한총련의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하면서 친북성의 문제를 계속 문제시 삼고 있다≫고 검찰의 반응을 전했다.

또, 김경진 산업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은 현재 산업대의 상황에 대해 ≪총장님이 관할 경찰서인 노원경찰서에 주변 아파트에 미치는 소음, 오물 등의 이유를 들어 시설보호를 요청했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도 계속 출범식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러한 공안당국과 산업대 학교본부에 한총련에 대한 합법적 활동보장과 한국대학생 5월 축전의 평화개최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와 10기 한총련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안의 잔존≫이라며 ≪한총련에 대한 비이성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5월 축전에 대한 공안당국의 봉쇄조치 철회 ▲10기 한총련 대의원 수배조치와 대의원 출두요구서 발송 중단 ▲97년 이후 한총련 대의원 수배조치 해제와 관련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근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논란과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의 가장 큰 대중행사 중의 하나인 한총련 출범식을 검 · 경 공안당국이 어떠한 수준에서 막아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동렬 기자
2002/05/02 통일뉴스

준법서약서 합헌 판결을 철회하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준법서약서 제출이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이유의 요지에서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배하려는 세력의 위법 행위는 다른 범죄 수형자들에게 적용되는 것 외에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수형자들이 지닌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한 번 답해 보라.

진정 준법서약서가 수형자 양심의 표명을 강제하지 않는 것인가. 수형자의 입장에서 준법서약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가석방에서 제외된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신체의 자유를 볼모로 삼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준법서약서를 거부하고 수십년간을 수감생활을 하는 장기수들에게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느냐,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느냐에 대한 선택 외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또한,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것 외에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심각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당시, 사상전향서가 인권 위반이라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겠다는 말에 분노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다시, 헌법으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헌법재판소가 외면하는 것에 대해 더한 분노를 표명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준법서약 합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당은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2년 4월 26일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노동당 이문옥 후보 서울시장 출마선언



민주노동당 부패방지위원장인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이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을 천명하며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했다. 민주노동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권영길 대표 등 지도부, 이 위원장, 김종철 용산구청장 출마예정자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의 아들들이 온갖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서울시민들의 소박한 꿈이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로 무너지고 있다≫고 현 정국을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며 ≪서울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갈 자신이 있다≫며 ≪양심이 살아 숨쉬고, 상식이 통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자, 서민 중심의 서울행정을 주장했다. 그는 ≪서울 시민의 대다수인 노동자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애인들의 외침은 탁상행정에 묻히고 있다≫며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서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 서울 시정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래로부터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총제적인 ≪서울개혁≫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의 참여 등 참여와 평등, 공공성과 연대성을 통한 민주주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약속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진정한 서울시 ≪행정개혁≫을 이루겠다≫며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위해 서울시장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환경과 서민복지를 위한 연대,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상시특별검사제 도입, 박정희 기념관 건립 저지를 위해 1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2002/04/30 디지털말

112주년 메이데이 전야제에 열린 민주노동당 토론회

≪노무현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가?≫

112주년 메이데이 기념 전야제의 일환으로 열린 ≪노무현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가 민주노동당 주최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대에서 약 2시간 넘게 진행됐다.

≪노동자들이 노무현에게 희망을 걸고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철없다고 꾸짖을 건가요? 우리가 노풍을 대하면서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는 반노동자적인 정치인이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희망을 가져다 줄것인가를 겸허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토론회 강사로 나온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국장은 3김으로 대변되는 한국 보수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있는 노풍을 인정하면서도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노무현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지적을 했다.

노사무국장의 문제인식은 최근 시사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노총 소속회원이 비교적 적은 부산지역에 노무현후보의 지지도가 40%이하로 떨어진 반면, 소속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울산에서는 여전히 50%을 웃도는 지지율이 나타난다는 것,

하지만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 것과 최근 김영삼씨를 대담하는 등 구정치인과 만나는 일을 들먹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노무현은 반노동자적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으로 노동자세상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이 다수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대안마련만이 노동계의 ≪노풍≫을 억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진 토론시간, 참여한 학생들은 노무현이 대안일 수 없는 이유를 제기하며 열띤 주장을 이어갔다.

고려대문과대 새내기의 ≪민주노동당을 찍으면 이회창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들 한다≫는 문제성(?) 질문에서부터 경희대 새내기의 ≪서민을 위한 정치와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노무현밖에 없다≫는 노풍지지발언까지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백영순 윤진경 기자
2002/05/01 유뉴스

민주노총, 세계노동절 112주년 기념대회 개최



세계노동절 112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기념대회를 1만 5천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저지 ▲노동운동탄압 분쇄 · 구속노동자 석방 ▲비정규직 차별철폐 · 정규직화 ▲공무원 · 교수 노동3권 보장 ▲김대중 부패정권 규탄과 무기강매 미국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수호(민주노총 임시비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노총이 처해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어떻게 단결하고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다≫며 ≪제정당과 제조직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날 우리 함께 싸워나가자≫고 대회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4월초 발전파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조직 내부의 혼란을 겪어온 게 사실≫이라며 ≪잘못과 오류는 분명히 밝히고 책임 또한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정세와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투쟁의 과제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힘차게 일≫어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대사에 나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표는 ≪민노총이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를 예속 경제로 만들고 있는 미국반대 투쟁을 해야 한다≫며 이는 ≪민노총만이 미국반대, 김대중 정권 반대 투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홍근수(민중연대 공동대표) 목사도 연대사에 나서 ≪발전노조 투쟁은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민족이 자주적인 독립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속적인 국가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투쟁이었으며 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민노총 동지들이 정도와 수준을 떠나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한다면 모든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2002년 한국노동자 투쟁 선언≫을 통해 ≪뼈를 깎는 자성과 열린 마음으로 1300만 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을 일으켜 세우자≫고 결의를 모았다.

참가자들의 투쟁 선언으로 본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여의도에서 영등포시장 로터리까지 거리행진을 가진 뒤 기념대회를 마쳤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본대회에 앞서 각 연맹별로 사전대회를 가졌으며, 전날인 30일 밤에는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비정규직 · 중소영세 · 여성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 한국노총도 1일 오후 1시 종묘공원에서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2002년도 5 · 1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송정미 기자
2002/05/02 통일뉴스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4일 - 26일

그럼 이번엔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오늘 현실은 학생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새삼스레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학생운동을 더욱 강화하려면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해 얘기좀 나눠보자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그럼 먼저 학생운동조직이 왜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돼야 하는가에 관해서 얘기됐으면 하는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규 : 일반적으로 대중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대중운동발전의 필수적 요구인데요. 만일 대중운동조직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되지 못하면 광범위한 대중을 한데 묶어세울 수 없고 따라서 대중운동을 성공리에 벌여나갈 수 없습니다. 대중운동으로써의 학생운동도 마찬가지죠. 학생운동조직이 학생대중 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돼야 그들을 한데 묶어 세워 운동을 힘있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학생운동조직이 광범위한 학생대중 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돼야 하는 것은 학생운동의 현실태를 봐도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한총련의 노선과 방침을 시비하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운동을 외면하고 있는 경향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데서 일련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투쟁에서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도 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의 상태가 이같이 계속된다면 당국의 탄압에 견뎌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의 사명과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 : 땅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나무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학생운동조직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죠. 정말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드는 건 학생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할겁니다. 그러면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김현규 :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투쟁노선과 방침을 바로 제시하는게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투쟁노선과 방침이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학생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높은 의욕을 가지고 투쟁에 발벗고 나설 수 없는 것은 물론 그런 노선과 방침을 제시하는 조직을 따를 수 없죠. 역사는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지 않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노선과 방침을 제시할 때에는 투쟁에서 패했을 뿐 아니라 그런 조직은 대중으로부터 고립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조직은 운동의 성과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조직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투쟁노선과 방침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투쟁노선과 방침을 제시하자면 대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것을 투쟁노선과 방침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학생운동핵심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요구와 지향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정세를 정확히 분석, 판단하고 그에 기초해서 모든 투쟁노선과 방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관적 욕망만 앞세우면서 모험적이며 극좌적인 투쟁노선과 방침을 제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조직내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일부 학생들속에서 한총련의 운영방식을 두고 폐쇄적이고 경직돼있다는 비판의 울려나오는 조건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현규 :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한총련은 학생운동의 사령탑으로써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힘있

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총련이 대중조직답게 큰그릇을 가지고 학생대중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 있는데요, 좀더 아량을 갖고 대중을 포섭해야 하겠는데 노선이나 이념 등 기타 문제에서 조금만 의견차이가 있어도 상대방을 배척하고 자기 주장만 주장이라고 고집하는 현상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일부 학생 가운데 그와 같은 편협한 사업작풍은 대오의 단합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죠. 학생운동조직은 이런 경직된 운영방식을 하루빨리 지양하고 조직내에서 민주주의를 잘 발양시켜야 할겁니다.

김현규 : 그러자면 관료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없애야 하는데요. 학생운동핵심들은 뜨거운 인정미를 갖고 학생들을 따뜻이 대하며 특히 주의주장이 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따돌리지 말고 노숙하게 포섭해 광범위한 대중을 모두 한총련에 굳게 결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그에 걸맞게 조직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김현규 : 조직을 대중운동조직답게 튼튼히 꾸리지 못하면 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을 수 없고 따라서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운동에 걸맞게 튼튼히 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운동에 걸맞게 튼튼히 꾸리자면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망라할 수 있게 조직을 내오고 학생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조직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총련의 경우 각 지역총련과 대학 총학생회,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와 과학생회를 정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능력이 있고 애국심이 높으며 작풍이 좋은 그리고 대중성이 강하고 학생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학생들로 학생회를 꾸리는 것과 함께 일사분란한 조직체계와 사업체계를 꾸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한총련과 그 산하조직들을 잘 꾸리는 것과 함께 그 활동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조직을 잘 꾸리자는 것도 어디까지나 활동을 더 잘하는데 있습니다. 한총련과 산하조직들은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의식화작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이 언제나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상정신적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식화작업을 학생대중의 준비정도에 걸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부단히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정세의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에 따라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학생대중의 감정과 정서에 부합되는 옳은 투쟁방법들을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을 더욱 단련시키며 조직의 위력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얘기된 것을 종합해보면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우선 노선과 방침을 정세요구와 학생대중의 지향에 걸맞게 세우고 조직내에서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양시키며 조직을 강화하고 활동을 부단히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학생운동핵심들이 이것을 명심하고 더욱 분발해 학생운동을 명실공히 대중운동의 선봉대로 우뚝 세워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대중속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렸는데요. 학생운동 핵심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조직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겁니다.





통일쌀 보내기 전국 차량 선전전및 기자회견

1. 통일연대에 함께 결합하고 있는 전농에서는 ≪WTO 쌀 수입 개방 음모 속에 날로 하락하는 쌀 가격과 재고량 증가로 위기에 처한 쌀농업을 지켜내고 7천만 민족의 식량을 자급자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가구 쌀 한되 모으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아진 쌀을 5월 2일 전국을 순회하여 각 지역별로 모은 쌀을 다시 모으고 각 도별로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5월 3일 서울 국회로 집결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통일연대에서는 6 · 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근거하여 우리민족끼리의 단결, 그리고 힘을 모으는 사업의 한 축으로 진행되는 전농의 통일쌀 보내기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서울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받아 공동으로 진행할 것에 대해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각 지역 통일연대 또한 각 도연맹 차원으로 진행되는 전국 차량 선전 투쟁과 기자회견에 적극 결합할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각 지역 통일연대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통일 쌀 보내기 전국 차량 선전 투쟁≫에 대해 지역통일연대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 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쌀 보내기 운동≫과 관련하여 여론전을 적극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통일 쌀 보내기 전국 차량 선전 투쟁 계획안

1. 일정

▶ 1조 : 순천 출발(9시 이전) → 경남(오전 12시, 도청 앞) → 경북(15시, 도청앞)→ 상주(17시) → 강원에서 숙식 → 강원(3일 10시, 도청 앞) →서울(14시)

▶ 2조 : 광주 출발(오전 10시) → 전북(12시, 도청 또는 뉴코아 앞) → 충남(15시 30분, 도청)→ 충북(18시, 도청) → 충북에서 숙식 → 경기(3일 10시, 수원역) → 서울(14시)

* 순천, 광주에서 트럭 10대씩 출발.
* 각 도연맹에서 트럭 3대씩 합류

2. 도별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진행

- 각도 집결지에서 기자회견 및 약식집회 진행.
- 지역통일연대 및 사회단체와 함께 진행.
- 주요 요구사항은 ≪WTO 쌀수입반대≫, ≪쌀 300만석 이상 대북 조기지원≫, ≪4.18 쌀산업종합대책 철회≫
- 기자회견 후 다른 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선전전 전개.

3. 전국 차량 선전 투쟁 서울 집회(안)

- 주최: 전농, 통일연대

1) 명칭: WTO 쌀수입개방 저지, 대북 쌀 300만석 조기지원 촉구 기자회견 및 농민 결의대회
2) 참가규모: 차량 50여대, 100여명
3) 일시 및 장소 : 2002년 5월 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한나라당사 앞)
4) 주요 구호

- 민족농업 말살음모 WTO 쌀수입개방 저지하자!
- 6.15공동선언 이행하고 대북 300만석이상 조기 지원하라!
- 식량자급 포기하는 쌀산업종합대책 철회하라!
- 쌀마저 포기하는 김대중정권 반대한다.
- WTO 쌀수입개방 강요, 무기강매 미국을 반대한다.

2002/04/30 통일연대

위대한 수령

-네팔청년연단위원장 데퍼스 차레만-

김일성
그분은 민중이 추대한 위대한 수령
민중의 아들로 태어나
민중위해 모든 것 바치신 분
세계의 격찬을 받으시며
조선을 이끄시었네

김일성
그분은 언제나 민중속에 계시며
민중과 생사고락 같이 하셨네
민중의 목소리 귀담아 들으시며
민중위해 헌신분투하셨네
인간의 신성한 권리를 지켜주셨네

김일성
그분은 밤이나 낮이나 눈이오나 비가오나
궂은 날 험한 길 가리지 않으시고
민중위해 낙도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민중을 위한 길 걷고 걸으셨네
조선의 번영위해 한평생 바치셨네

김일성
그분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한 세대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분
헌신적 활동으로 민중의 사랑받으시고
불굴의 담력으로 세계 인류의 경모를 받으셨네

김일성
그분은 나라의 존엄 세계에 빛내이신 분
주체의 새 역사를 빛나게 장식하신 분
그분은 세계정치계의 최고의 수령
세계의 가장 높은 칭송을 받으신 분

김일성
그분은 하늘의 태양으로 찬란히 빛나시네
천만년 세월과 더불어 영생하시네

주체91 4월 22일

지난 10일 남산공원에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켰습니다. ≪태양회≫의 명의로 된 유인물 앞면에는 ≪민족최대의 명절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뜻깊게 기념하자≫라는 글발과 함께 화창한 만경대고향집이 유인물 뒷면에는 ≪**김일성**주석님은 민중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라는 글발과 함께 주석님의 태양상이 모셔진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인물은 주석님의 탄신 90돌을 상징해서 각각 90송이의 **김일성**화와 주석님께서 사랑하신 목란꽃으로 그 테두리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4월의 봄을 맞아 꽃구경을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유인물을 보며 주석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279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외압의혹진상규명 및 ≪F-15K≫내정철회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이 19일 국방부정문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전투기를 끌어들이기로 한 당국의 처사를 준열히 규탄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8일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군대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인정, 책임자처벌 및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4.19봉기 42돌을 맞으며 전국 곳곳에서 4.19봉기의 뜻을 되살리고 선열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18일에 열렸습니다.

전국철도노조는 21일 노조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철회 등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총리 고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 전격참배가 알려진 21일 ≪한국≫시민단체들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우경화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행위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이 국제자유노련 등과 공동으로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했다면서 단병호민주노총위원장 등의 구속문제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며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 서명운동에 참가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제5차 ≪현시대와 민족예술에 관한 미학토론회≫가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주석님께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선물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터키노동당에서 선물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기념하기 위해 이북을 방문했던 세계 각국의 친선 및 연대단체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이 이북을 떠나면서 감사편지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1일 방글라데시 공산당서기장, 스웨덴 마르크스레닌주의공산당 대표단, 프랑스 조선친선협회 대표단, 월남 친선대표단, 이집트 농업 및 관계노동자총동맹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21일 조총련 상공회일군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이탈리아의 로마, 스웨덴의 세테보르 우흐, 브라질의 산 파블로, 리비아의 아지지아지역, 기니의 부브리카도 코바농장에서 기념집회와 도서, 사진전, 영화감상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활동약사를 네팔신문 ≪히로미크≫ 16일자가 ≪위인의 불멸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항일혁명편 4권을 13일 불가리아의 나로드나 뜨리부나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외무성대변인이 우주에 핵무기를 전개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반대했습니다.

주체91 4월 23일

미국노동자세계당대표단이 22일 ≪한민전≫ 평양대표부를 방문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동당, 통일연대, 자통협,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통일회의,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일 서울에서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54돌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한총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F-15K≫기를 도입하기로 한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과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인천노동자의 힘, 사회당 인천시지부, 인천대학교학생연대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대학생들이 20일 부평 미군기지앞에서 제6차 부평미군기지반미연대집회를 가졌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4.19민중봉기 42돌에 즈음해 19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5.18시민법정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지역위원회 결성식이 18일 광주시에서 있었습니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소속 50여명은 22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일본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왜곡책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근무제도입협상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다시 연대파업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148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는 재일조선교육일군, 과학자, 유학생들의 모임이 19일 조총련 오사카부본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19일 판문점을 참관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그분의 초상사진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11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에서 진행됐습니다.

태양절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

장으로 추대되신 9돌,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에 즈음해 3월 20일부터 4월 13일까지의 기간에 중국 심양, 말레이시아 NKP회사와 히키다테스회사, 라오스통신사, 인도네시아 ** 빈 로사 인투시다라선박회사, 레바논 근로자연맹회의실, 이란 HAEN회사, 리비아 미술아카데미, 기니 통일진보당 회의실, 민주콩고 진정한 루뭄바주의투사민족운동전국위원회, 우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칠렘베지부, 나이지리아 라부스민족예술극장, 쿠바의 아바나시 혁명박물관, 야라영화관, 에티오피아 메브릭신문사에서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주체91 4월 24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23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이북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무단의 공연을 관람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4월 23일 이북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가무단 왕조해단장을 비롯한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태양절에 즈음해 ≪한민전≫조직과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등 해외교포조직 및 동포들로부터 660여건의 전문과 편지들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가 차세대전투기로 ≪F-15K≫기를 선정한 국방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해 20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노동조합은 정부와 채권단이 매각을 강행한다면 총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KBS 제1텔레비전과 MBC 등의 민영화를 주장한데 대해 이는 방송을 자본의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망발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매국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설훈의원은 이회창의 2억5000만원 수수의혹을 뒷받침할 녹음테이프의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현재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중이라며 최후 순간까지 설득해 테이프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비전향장기수들인 김동기, 홍명기씨 등이 23일 미국노동자세계당대표단 성원들과 상봉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외무성 대변인은 고이즈미일본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 23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에콰도르 모로나 산티아고주이사회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주명예시민으로 추대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에 즈음해 이북 주재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회고모임이 5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루마니아조선친선협회, 끼르끼스딴주체사상연구소조, 불가리아**김일성**도서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항일혁명편 제1권을 이란 라쏘문화봉사기구에서 페르시아어로 출판했습니다.

주체91 4월 25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4월 24일 이북을 방문한 러시아연방 원동연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꼰스딴찐 보리쏘비치 뿔리꼽스끼와 그 일행을 접견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창군 7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삼가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침략에 날뛰는 미제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자≫라는 제목의 성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이인수공동의장이 미국의 ≪F-15K≫기가 도입전투기 기종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20일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광복후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무려 45만6670여리의 기나긴 길을 줄곧 이으시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부대의 3120여개단위를 현지지도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북을 방문한 5대륙의 180개 군사대표단들로부터 350여점의 선물을 받으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4일 러시아연방 원동연방구주재 꼰스딴찐 보리쏘비치 뿔리꼽스끼 대통령전권대표일행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23일 이북을 방문한 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서기장, 네팔 카트만두시친선대표단, 네팔인민복리이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외국인사들과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네팔조선친선의원단에서 선물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91 4월 26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0돌경축 노농적위대열병식이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미국사회노동당대표단,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대표단, 영국신공산당중앙위원회 서기장이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한민전≫ 평양대표부를 각각 방문했습니다.

각계에서 **김정일**영도자님을 위대한 영장으로 모신 크나큰 자긍심을 안고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떨쳐가는 영웅적 조선인민군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강렬하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사연구원 김명희씨는 ≪나는 세계최강의 군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북군의 위용을 분명히 느꼈다. 이북군은 장비면에서도 손색이 없지만 특히는 정신적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 군대도 감히 맞서지 못할 높이에 있다. 이북군이 세계유일 최강의 병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신력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격찬했습니다.

고려대 김창민교수는 ≪이북 사람들의 정신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남 영해에 떠내려왔던 인민군 병사들이 죽어도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무릎을 베고 죽겠다며 결사적으로 싸워 끝내는 장군님품으로 돌아간 그 불굴의 기상에서와 자폭정신, 일당백의 기질을 발휘하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이북 군인들을 보며 우리 모두가 가슴 뜨겁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4일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에 즈음해 이북 주재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축하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한 스웨덴조선친선협회 대표단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네팔 카트만두의 명예시민증서 전달식이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주체91 4월 27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4월 26일 저녁 5월 1일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4월 26일 이북을 방문한 러시아 모이쎄예브국립아카데미아민속무용단 단장을 비롯한 무용단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4월 26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이북을 방문한 러시아 모이쎄예브국립아카데미아민족무용단의 공연을 관람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일본역사왜곡규탄범시민추진위원회가 일본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규탄해 22일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인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공기씨가 19일 서총련 학우들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근무제협상에서 제안했던 조종안을 일단 거부하고 주5일근무제쟁취를 위한 투쟁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에 즈음해 비전향장기수들이 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가 잡지 ≪백두-한라≫ 4월호를 발행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전 네팔여성협회에서 선물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과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따쥐끼스탄대통령, 러시아연방공산당위원장, 우크라이나 공산당 제1서기, 루마니아사회주의노동당 위원장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에 즈음해 러시아중앙무력박물관, 이집트민족영화센터, 멕시코쑤니칼린문화회관, 윁남하노이, 리비아타주라기계수리공장과 하와르가지역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사진전과 영화감상회,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중국의 인민일보 19일자가 ≪소중한 추억≫이라는 제목과 ≪**김일성**주석과 중국 지도자들의 우정을 추억하여≫라는 부제목으로 된 장정연의 글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이름있는 대학교수 자크 ****이 최근 유럽인들에게 연명으로 보낸 편지에서 부시행정부의 전횡과 독단을 폭로했습니다.

아랍국가연맹 아무르 마흐브므사서기장이 이스라엘 샤론총리를 비호하는 발언을 한 미국 부시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주체91 4월 28일

범민련 남측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일본 군국주의부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각계 민중은 최성홍외교통상부장관이 최근 미국행각시 미국당국자들과 만나 이북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을 적극 지지한데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의 한 인사는 최성홍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 분노를 표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성홍의 발언은 6.15남북공동선언과 공동보도문에 따라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참을 수 없는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족적 행위이다. 미국 당국자들이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에 대한 핵공격계획까지 짜놓고 북침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하고 있는데 대해 항의는 못할 망정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을 지지하는 최장관의 망언은 동족을 해치는 것으로써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최장관과 같은 반통일세력들은 물러나야 한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공동보도문이 이행단계에 들어선 때에 최성홍이 미국행각시에 한 망언은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고 남북관계를 다시금 악화시키려는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사견이 아니다. 당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당국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6.15공동선언과 공동보도문이행을 파탄시키려는 최장관을 파면해야 한다. 그리고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방치해두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에 즈음해 체코공산당 서기장, 스웨덴마르크스레닌주의공산당중앙위원회 위원장, 도미니카통일된좌익운동 서기장이 각각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참가자들이 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미국사회노동당대표단 단장인 당정치국위원 스테픈 팔머 클라크가 22일 판문점에서 조선중앙통신사기자와 회견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활동약사를 12일 캄보디아의 에프엠90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9일 벨기에의 수도 브르쎌에 있는 미대사관앞에서 반미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습니다.